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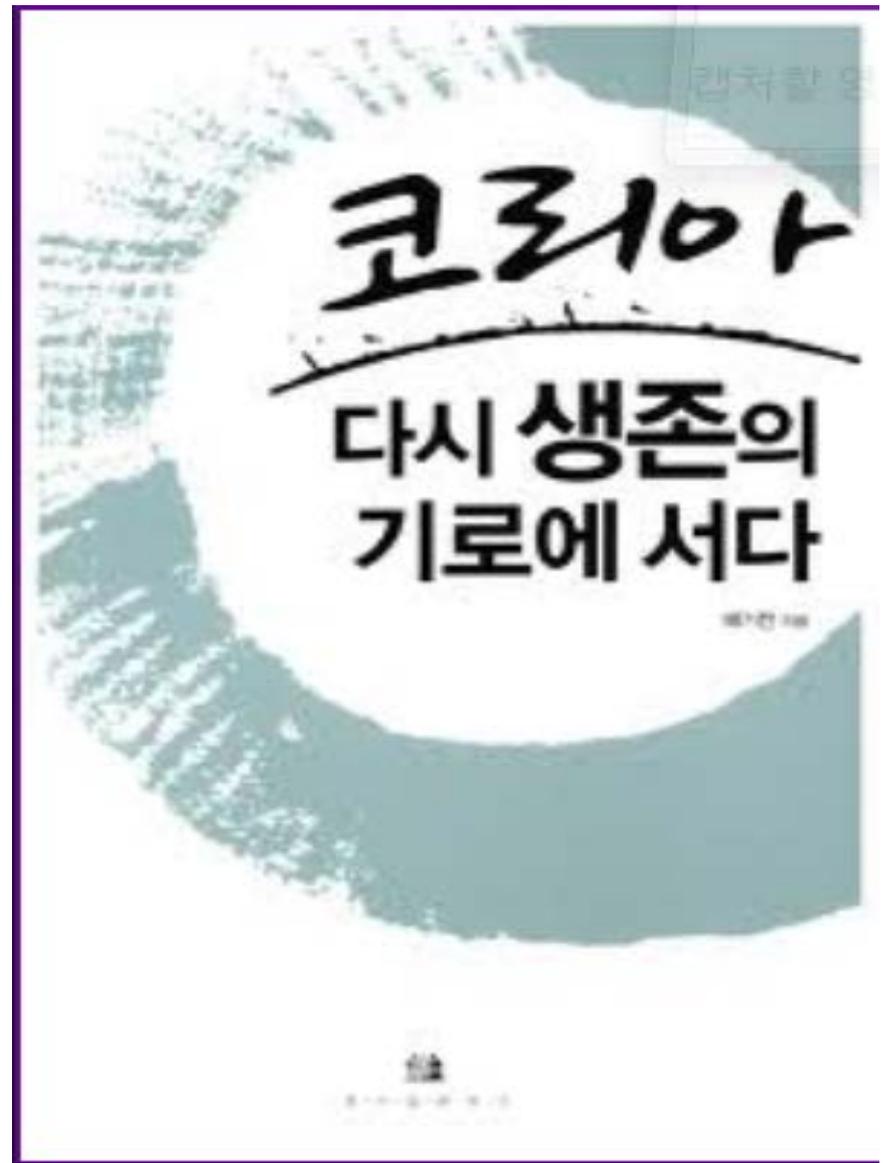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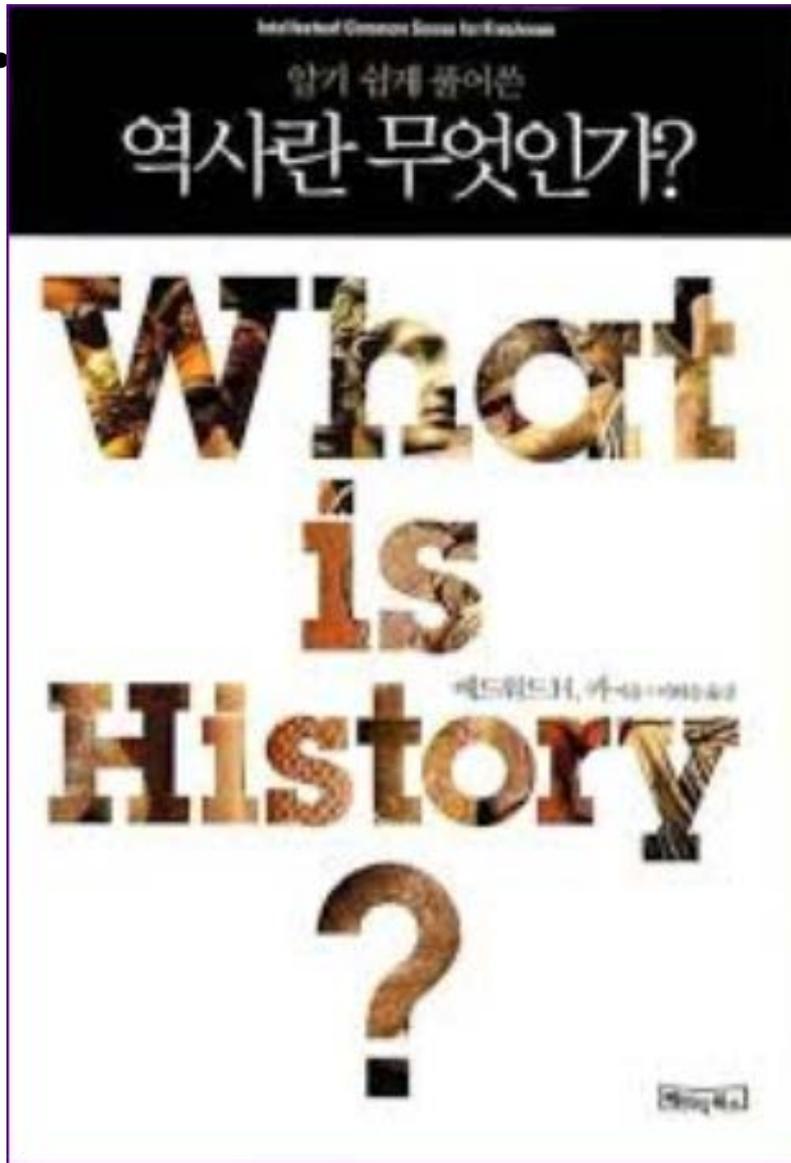
# 코리아의 역사와 통일 코리아의 비전

배기찬 : 통일코리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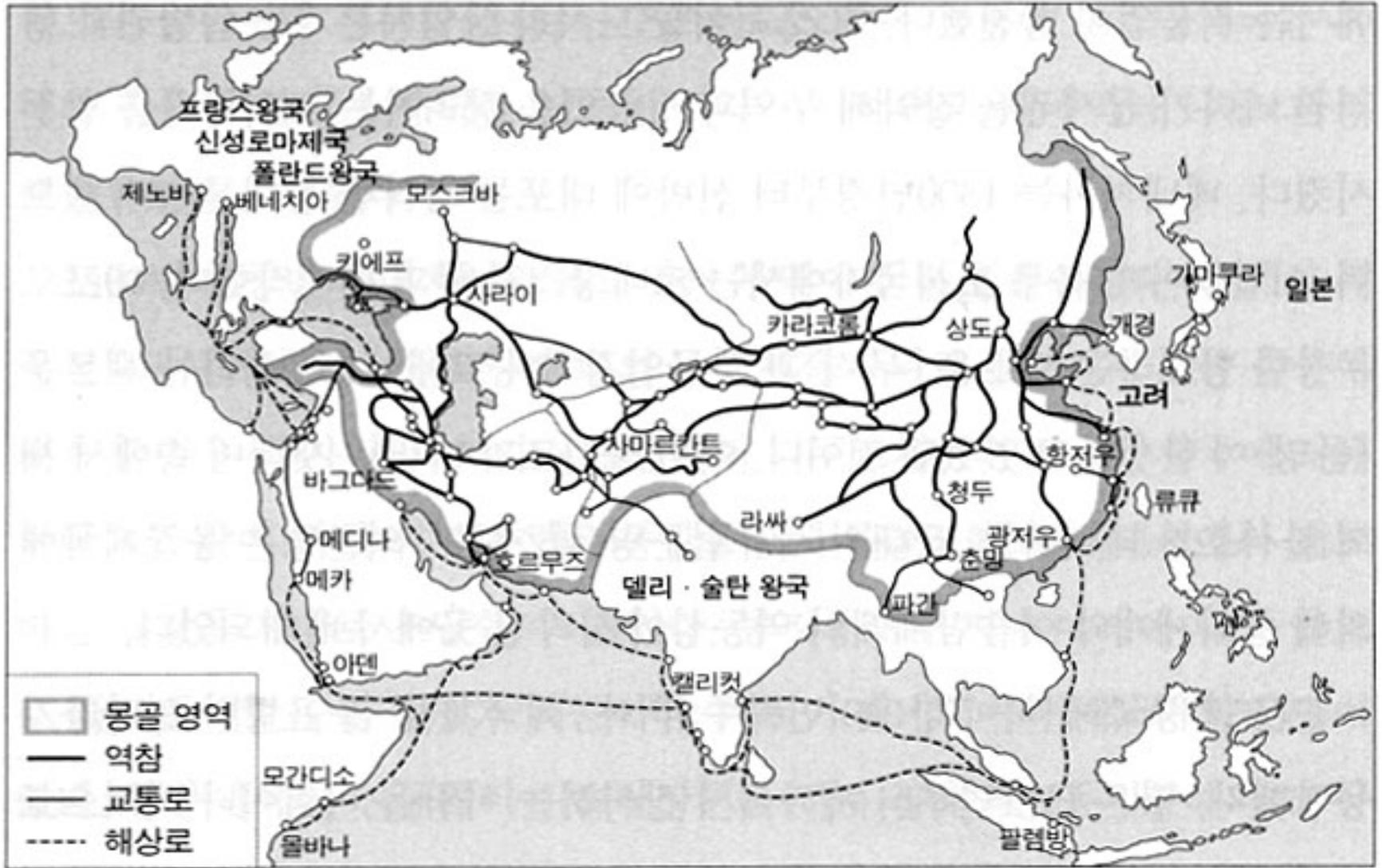
2015. 3. 31

서울대 통일평화아카데미

# 역사란 무엇인가?



# 몽골제국을 통해 세계사가 하나로 통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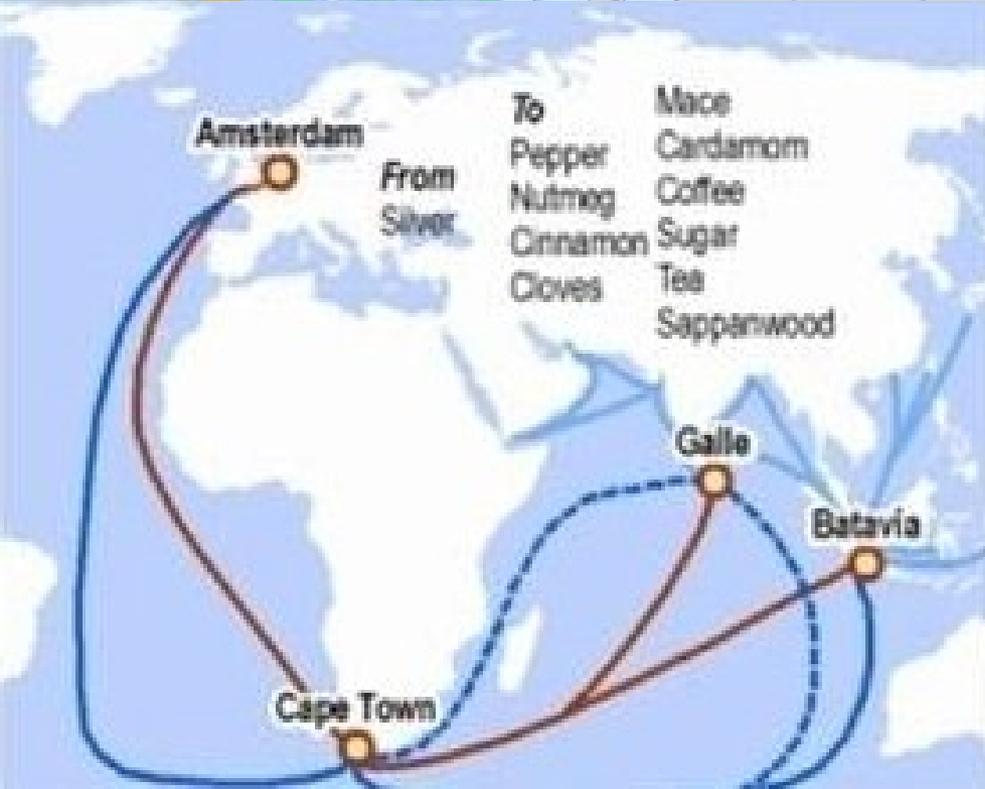
몽골의 세계제국과 제국의 교통로



# 7개주 연합 네덜란드공화국 (Republic of the United Netherlands 1581~1795)



- 유럽인들이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몰려옴
- 네덜란드의 신교도 엘리트들은 청교도적인 금욕주의로 낭비를 몰아냄
- 스페인을 물리친 네덜란드는 자연적 불리함을 기회로 활용해 어업과 조선.해운.금융에서 세계 최고가 됨
- 암스테르담은 유럽 금융의 중심지이자 물류의 중심지
- 1670년 기준 네덜란드의 선박 총 톤수는 영국.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독일의 선박을 합한 것 보다 많음



#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신앙혁명

- 청교도혁명(1640~1660년):

성서를 글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 자기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자부했던 영국 국민. 쾌락을 배척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진지하고 용감함.

일단 결정한 신념은 행복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영국인의 전형. 영국인의 특성은 청교도로부터 유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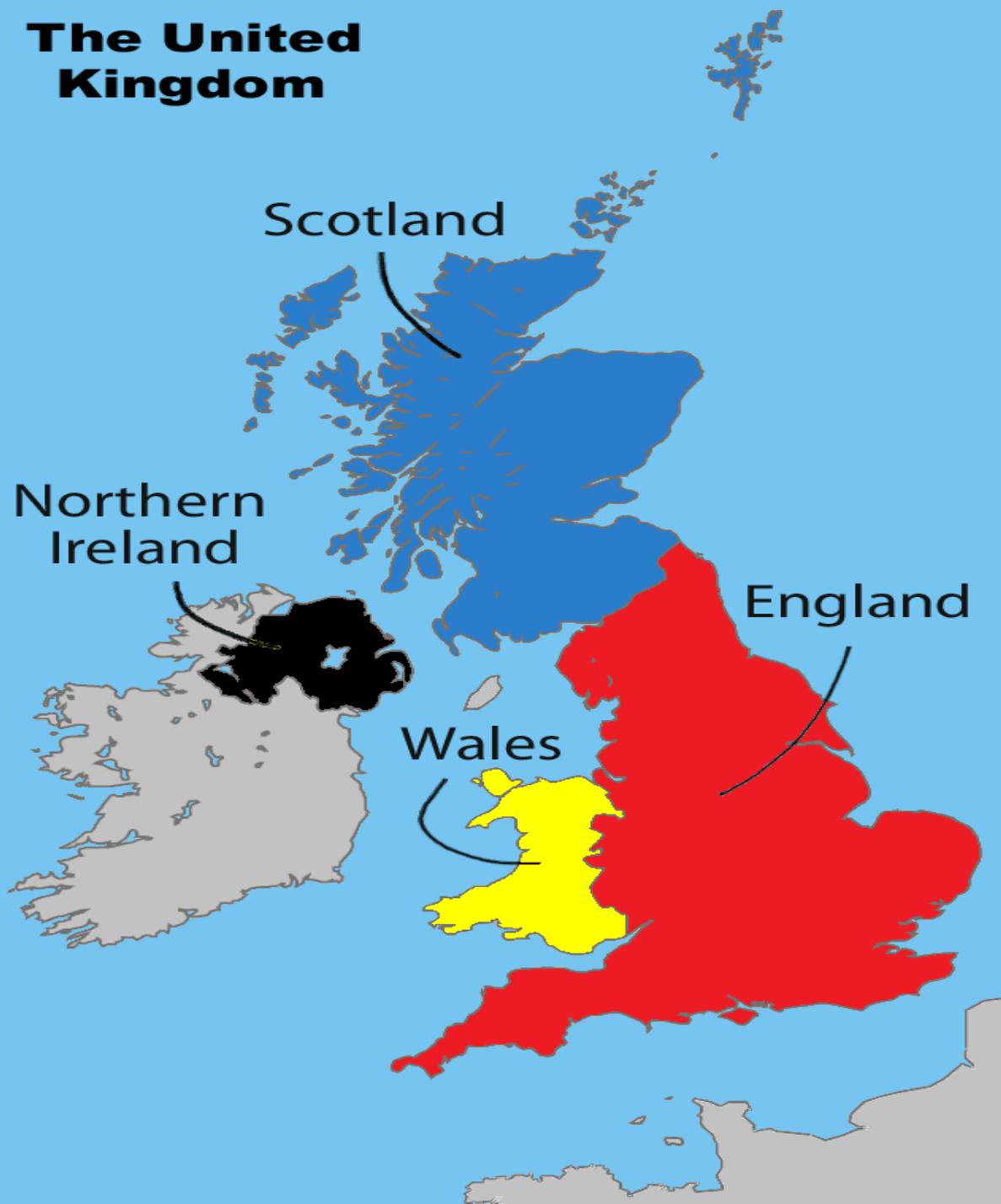
- 1688년의 명예혁명: 민권신장을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 에드먼드 버크는 이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이라고 함. 전제주의로부터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을 국민간의 분열을 남기지 않고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 존 로크의 ‘천부인권설’, <정부론>

- 존 웨슬리의 등장(18세기 중엽):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단련시킴(메소디스트). 무기력한 세계를 진정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낌. 1810년에는 23만명의 신자. 종교가 다시 한번 거의 원시적인 형식을 띤 활기있는 신앙이 됨. 이 종교의 각성으로 곤궁한 하류계급의 생명력을 종교로 흡수함으로써 대륙이 민중보다 혁명사상에 유혹되는 정도가 약해짐

- 여론의 힘에 의한 의회 개혁(인도적인 법률제정), 서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숭고한 자유주의(노동자도 혜택을 입는 전반적인 번영), 기독교의 자선이라는 복음주의의 조류

- 영속성과 순응성, 다수의 결정에 규율있게 복종. 친절, 규율, 신뢰, 단결

# The United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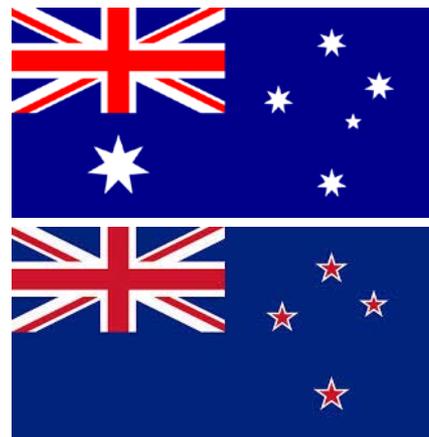
# United Kingdom of Britain

(1707~1801)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801~1927)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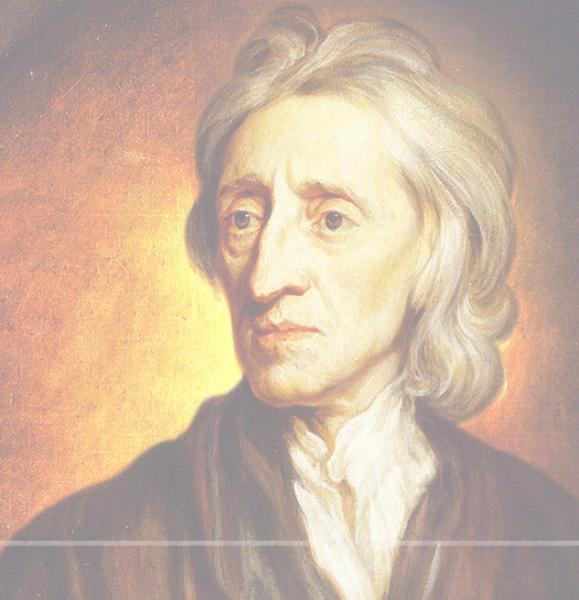


# 대각성 Great Awakening, Awak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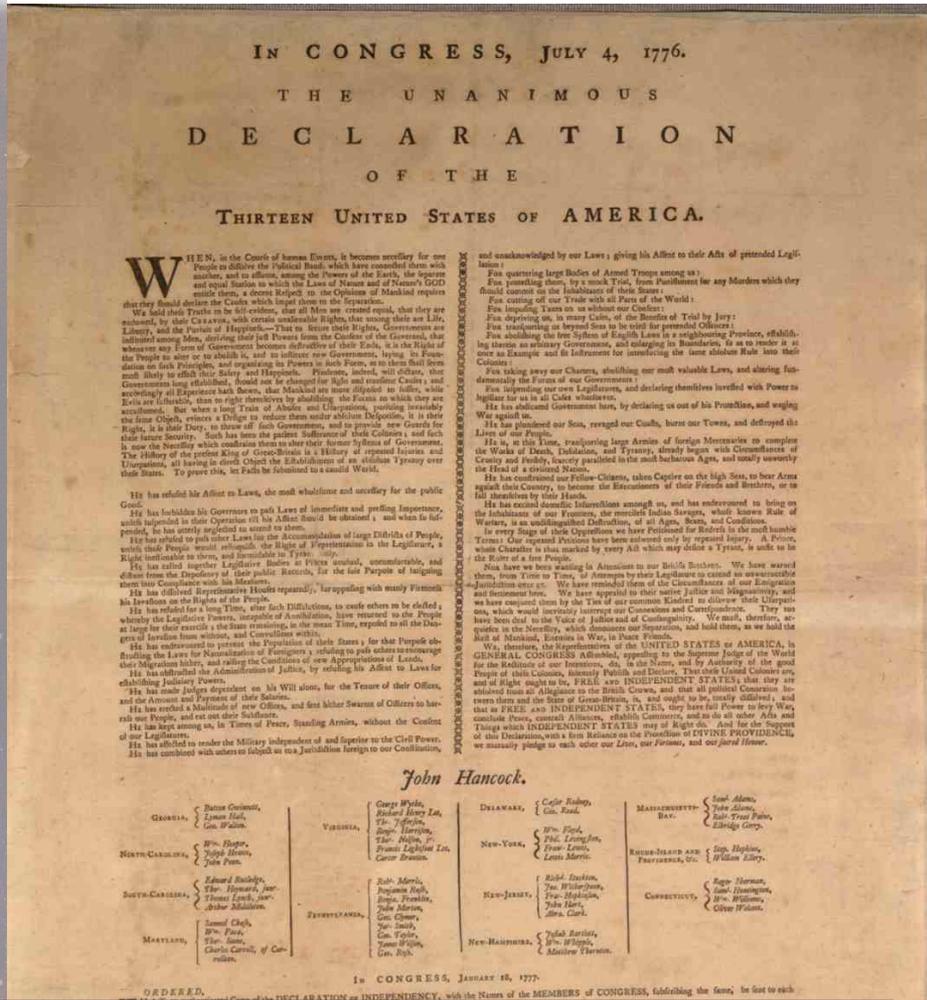
- 1차운동: 1734~1755, 2차운동: 1790~1840, 3차운동: 1850~1900, 4차운동: 1960~1981
- 유럽의 경건주의, 웨슬리의 복음주의와도 관련
- 1734년 뉴잉글랜드에서는 J. 에드워즈(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시작됨. 중부 식민지에서는 네덜란드의 개척파와 스코틀랜드계 장로파 사이에서 일어남. 50년대부터 남부에서도 장로파와 침례파 사이에서 운동이 확산됨
- 1739년 영국의 설교자 G. 화이트필드가 방문해서 순회전도를 개시하자 각지의 연대가 진행됨. 개인의 종교감정을 중시하고, 신교의 자유가 촉진되고, 복음주의적이며 평등주의적인 것이 퍼짐
- 신도의 양심 자각이나 지역을 초월한 국민적 연대감은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풍토를 가져옴

# 존 로크의 정부론(1689)과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

A PEOPLE WHO MEAN TO BE THEIR OWN GOVERNORS MUST ARM THEMSEVES WITH THE POWER WHICH KNOWLEDGE GIVES



##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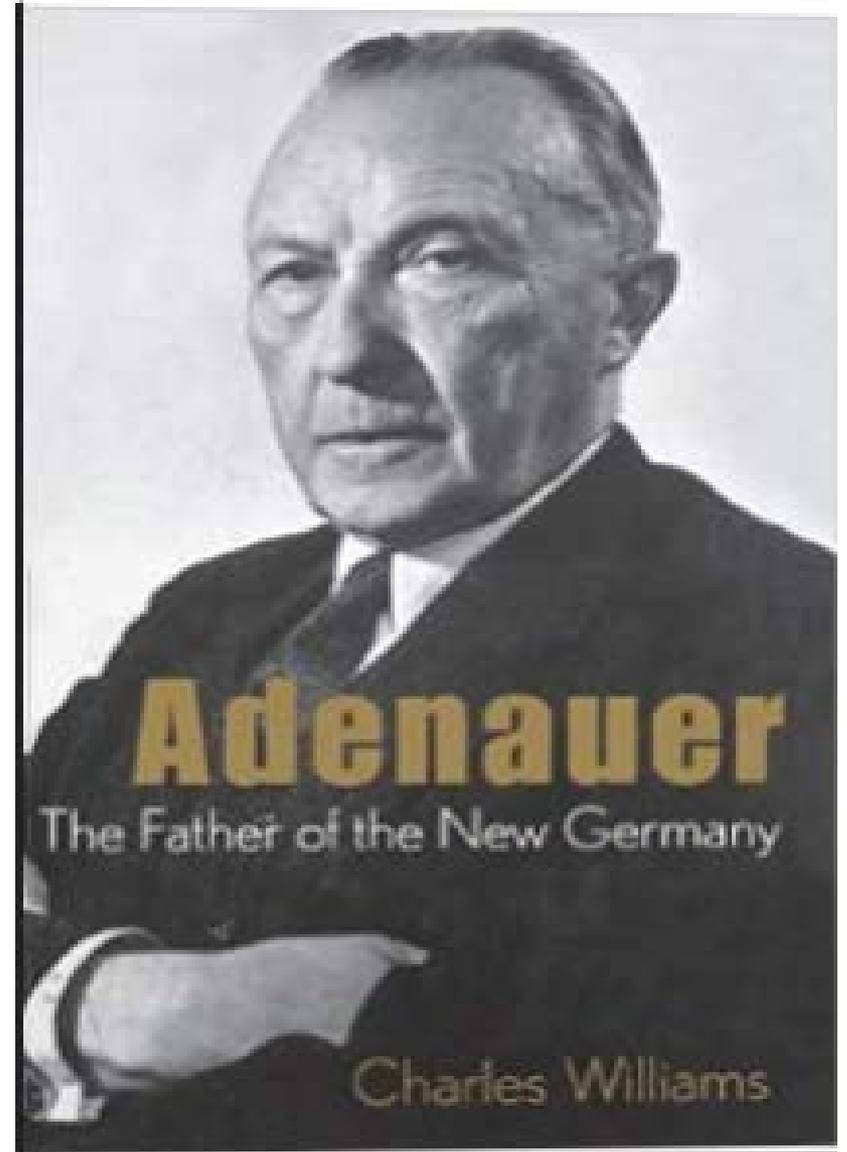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 United States of America

## 두 차례에 걸친 연합, 통합



# 나찌의 옛 독일과 아데나워의 새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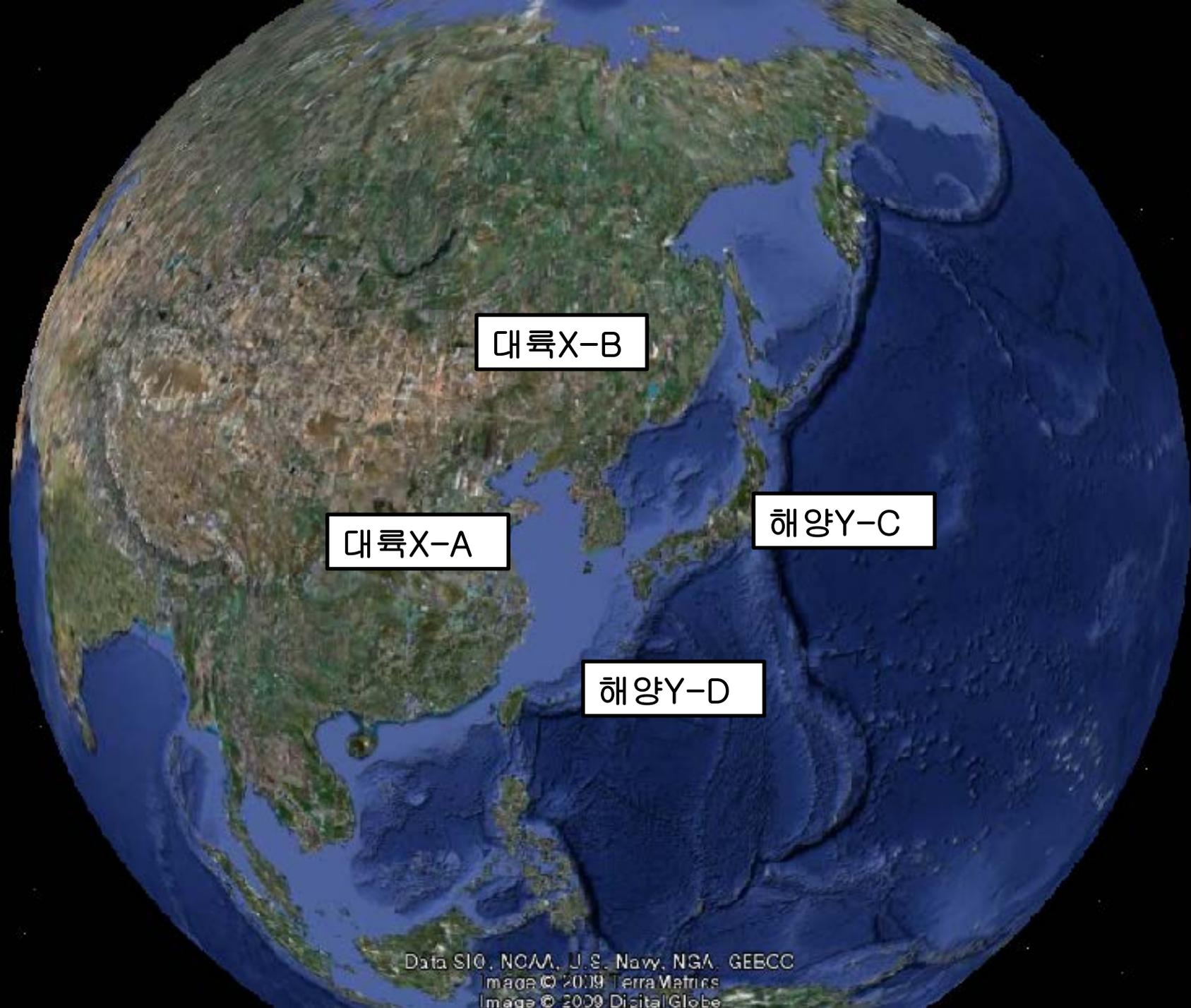


# New(1949), United(1990) Germany



Germany:  
the *Lä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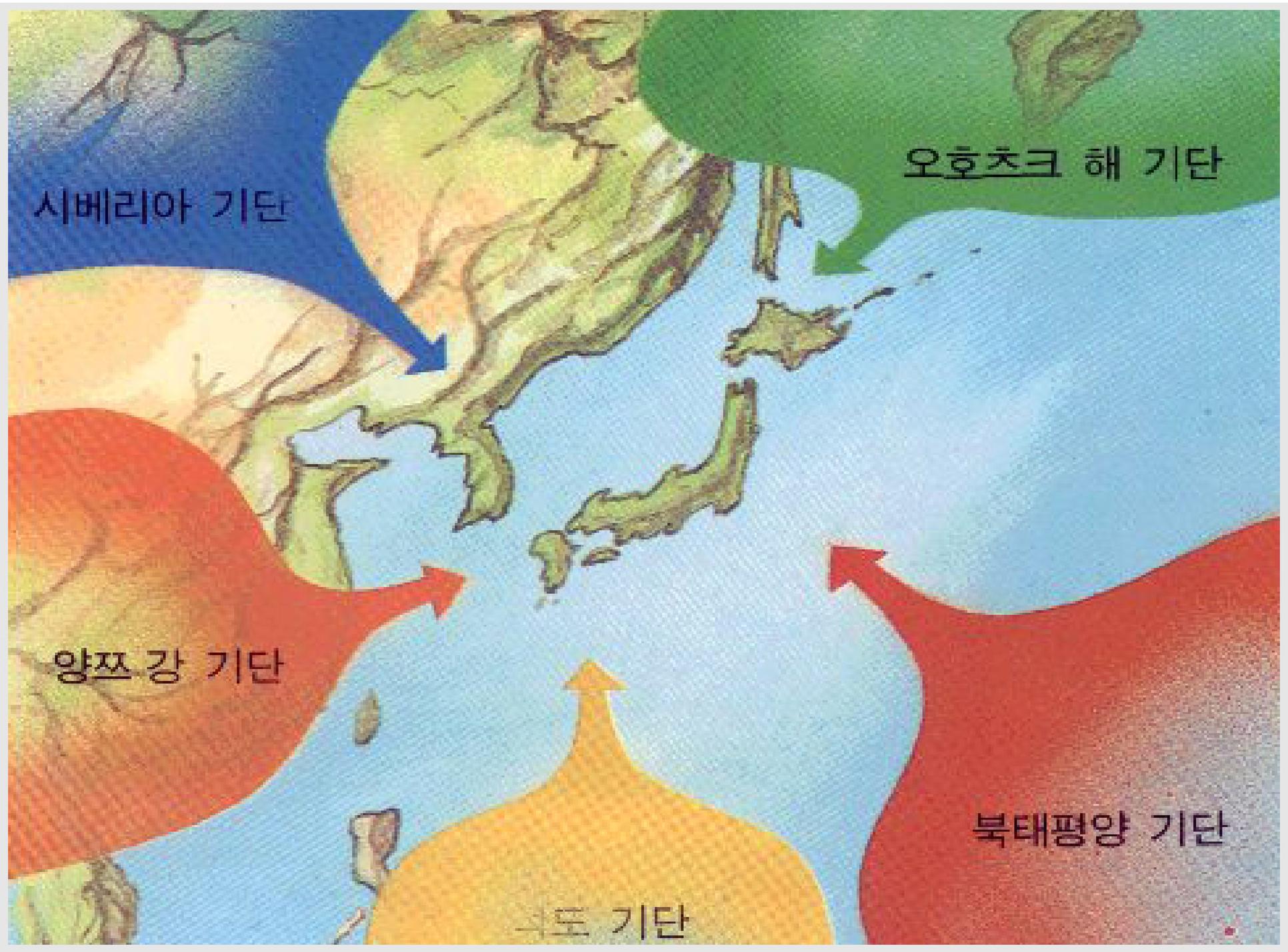


대륙X-B

대륙X-A

해양Y-C

해양Y-D



시베리아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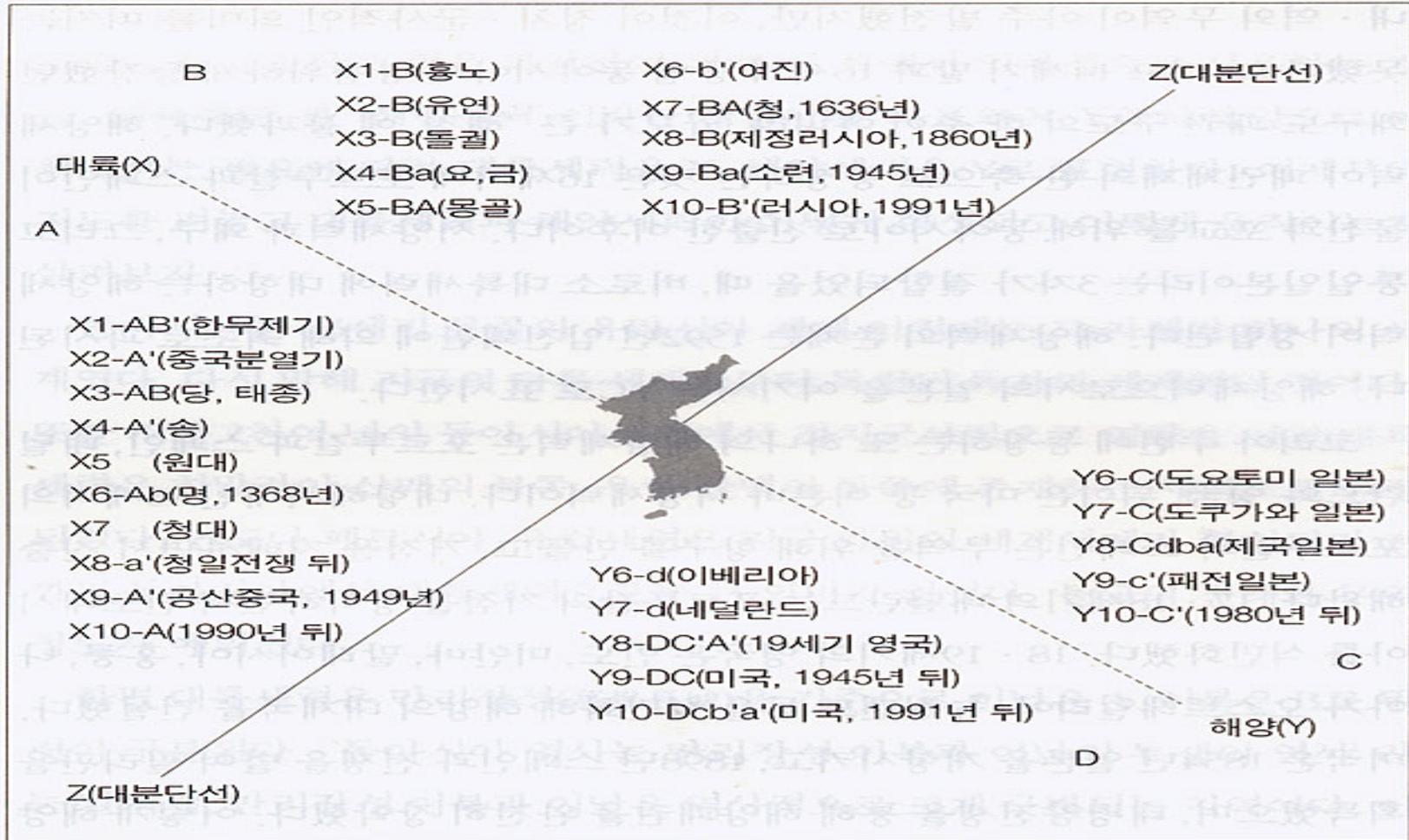
오호츠크 해 기단

양쯔강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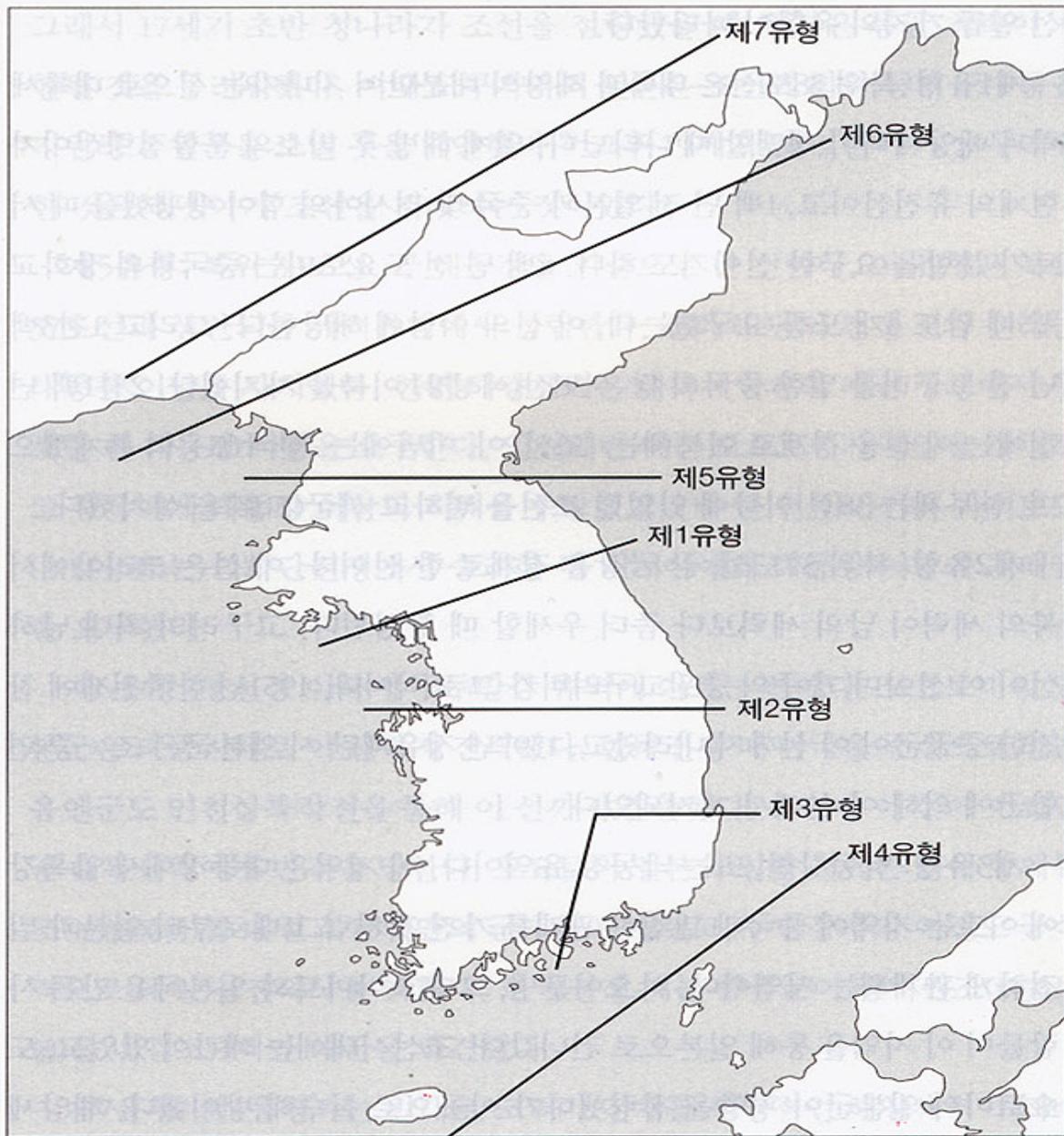
북태평양 기단

제주도 기단

# 코리아를 둘러싼 대륙과 해양의 세력관계 (원심력과 구심력, 원심분리기 속의 코리아)



코리아를 둘러싼 패권의 양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일곱 가지 세력배치



# 60년간의 부정부패 세도정치와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7), 병오박해(1846), 병인박해(1866)



B  
대륙(X)



Z(대분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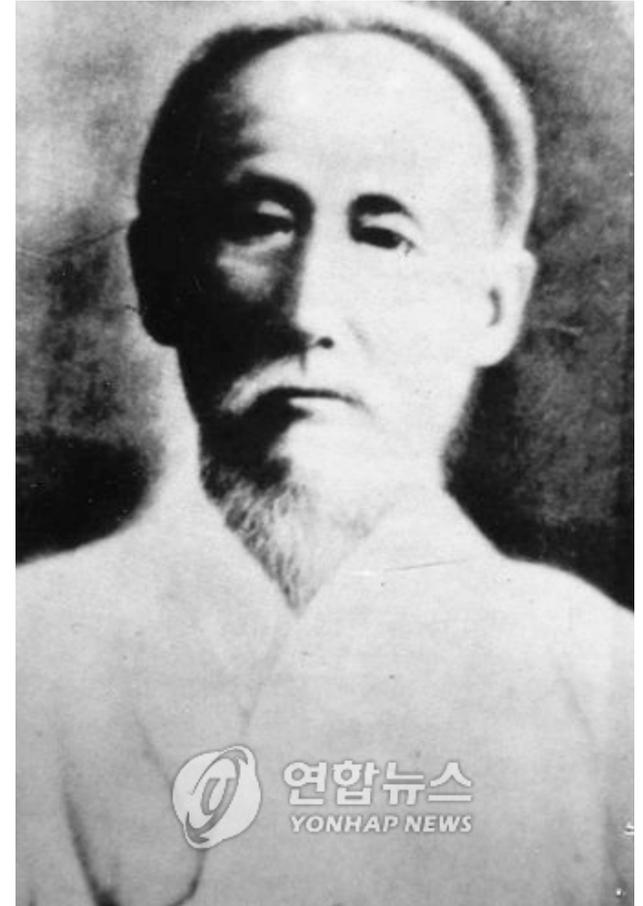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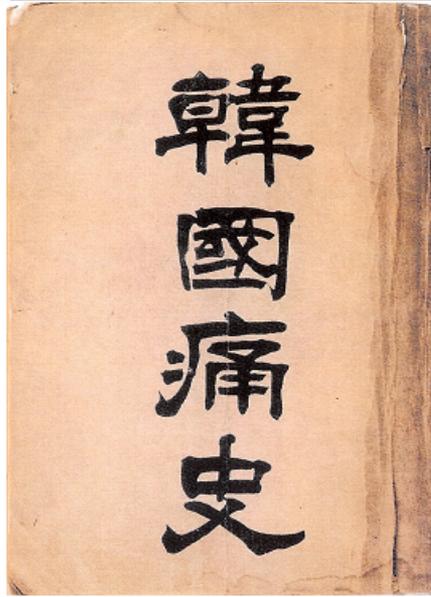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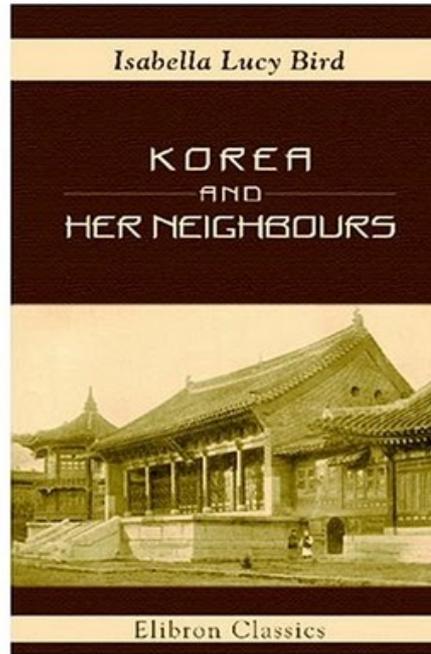
X8-a'(청일전쟁 뒤)  
X9-A'(공산중국, 19...)  
X10-A(1990년 뒤)  
Z(대분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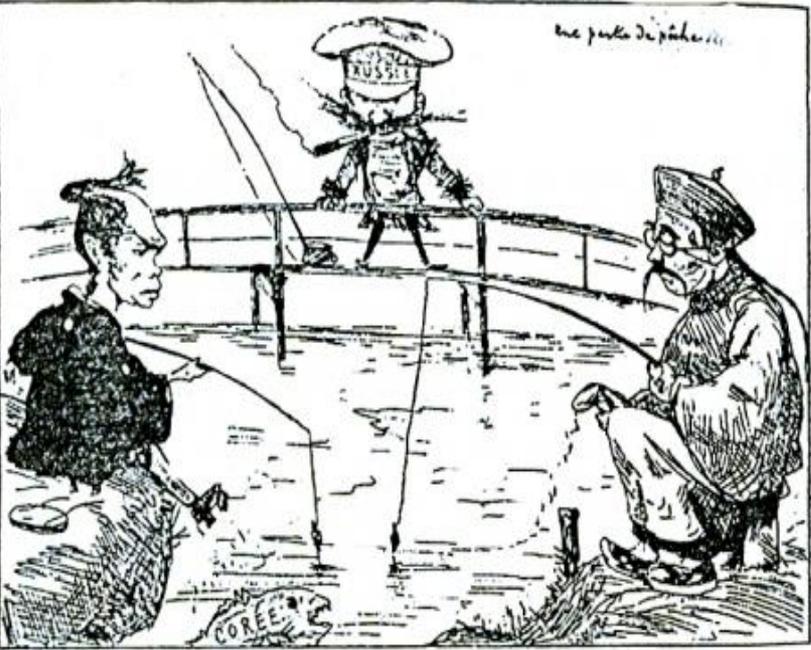


D

코리아를 둘러싼 패권의 양...

# 조선말의 상황에 대한 평가들





Издатель РУССКАГО ТЕАТРА ИСКУССТВА Москва, Чистый ск. Мухом. д. 6. А.



# 1919년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1919.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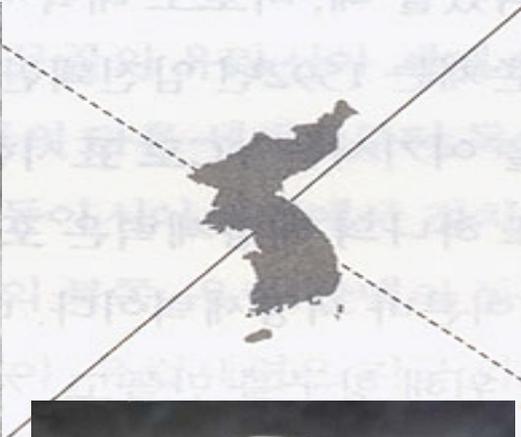


大韓民國三年一月一日  
臨時政府及臨時議政院新年祝賀式紀念攝影

B  
대륙(X)  
A



Z(대분단선)  
360년)  
)  
1년)



X9-A'(공산중국, 1949년)  
X10-A(1990년 뒤)  
Z(대분단선)



영국)  
년 뒤)  
1991년 뒤)  
D  
Y10-C'(1980년 뒤)  
C  
해양(Y)

코리아를 둘러싼 패권의 양상



**3**

JAPANESE EMPIRE AUG 1942

A U S T R A L 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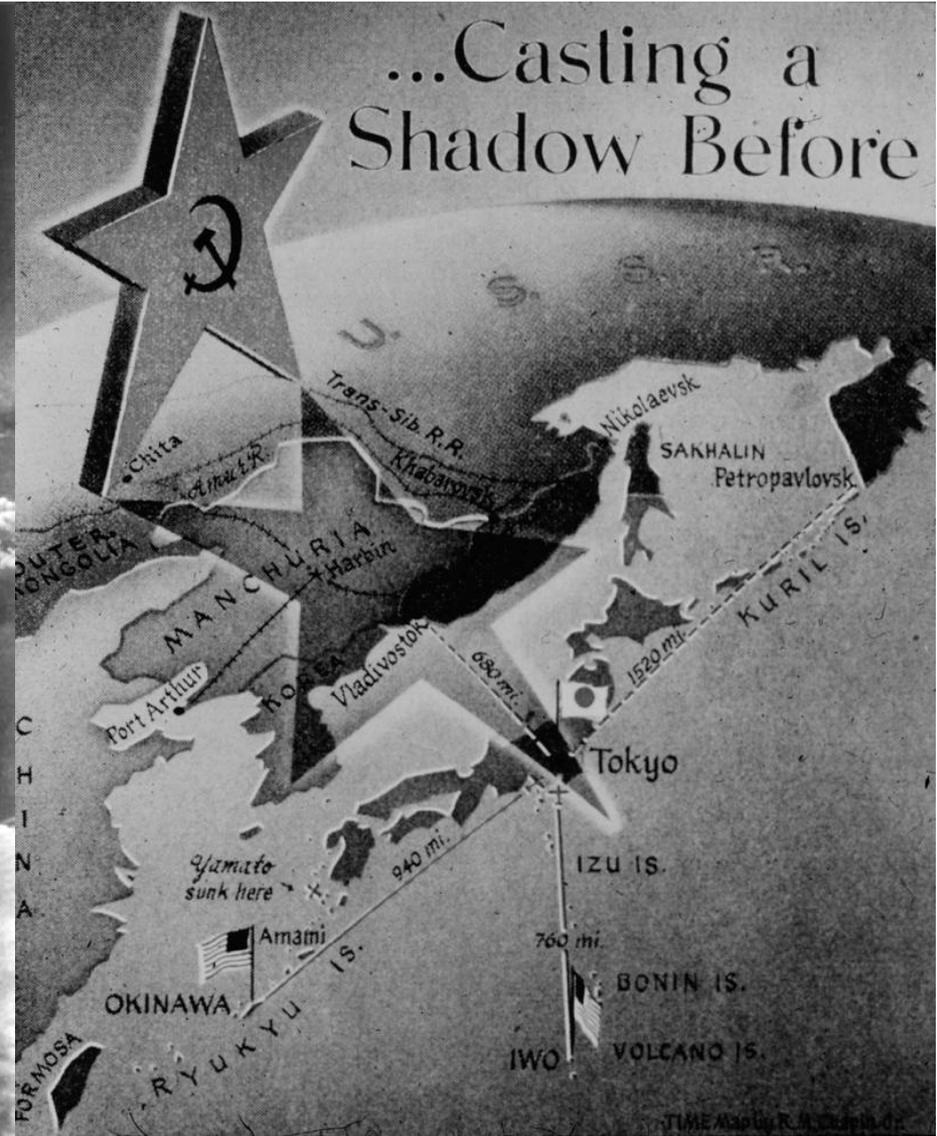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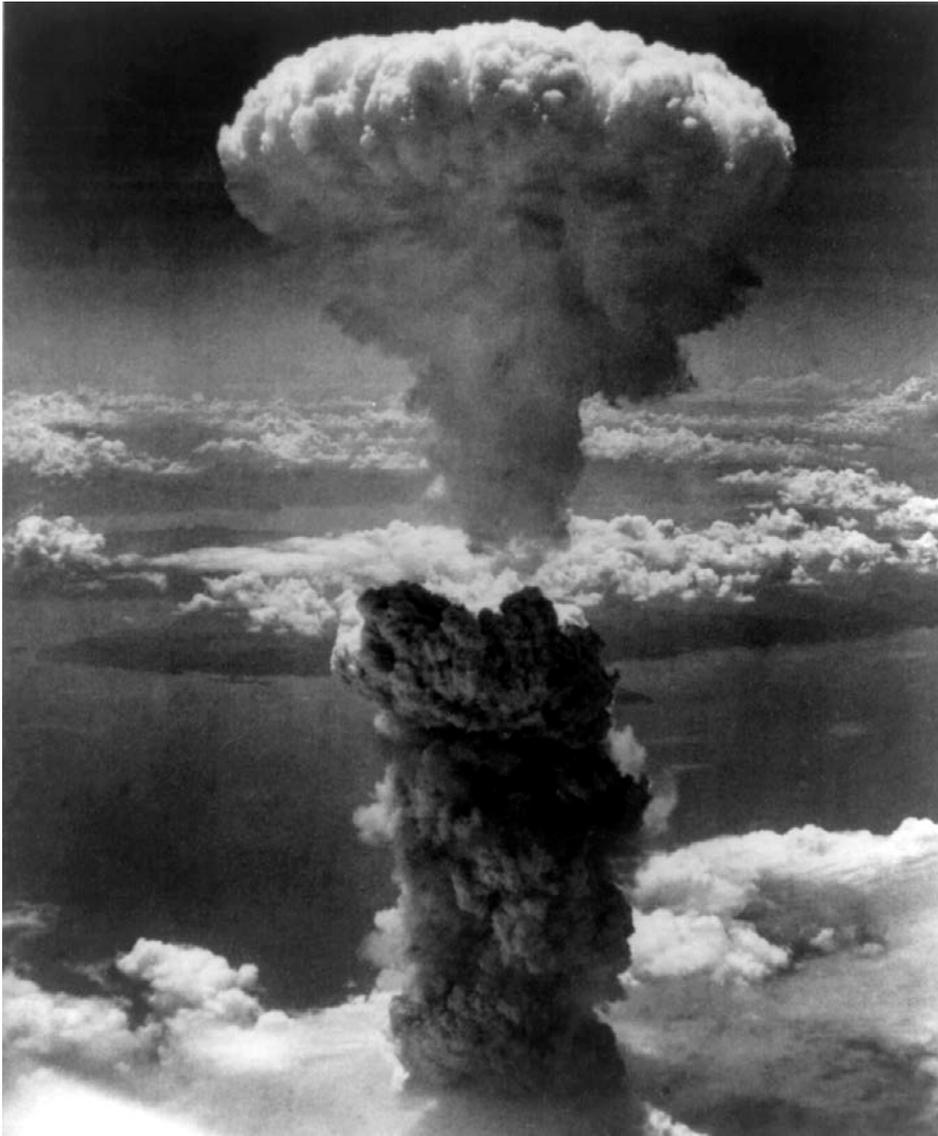
# 미국과 소련의 일제무장 해제와 38선 분단

1945년 5월30일, 일제는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은 만주 관동군 34군이,  
이남은 일본대본영 직할 17방면군이 담당토록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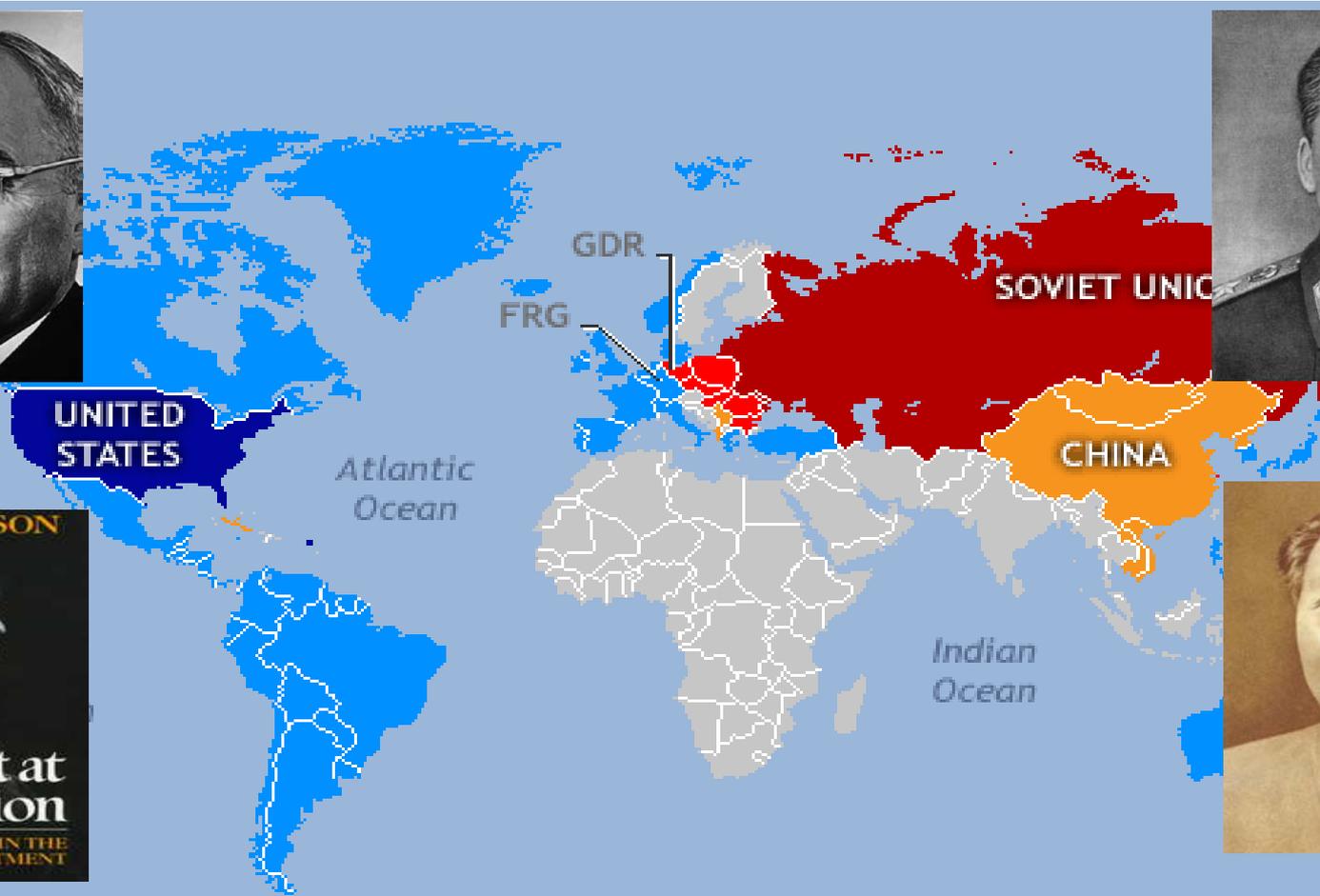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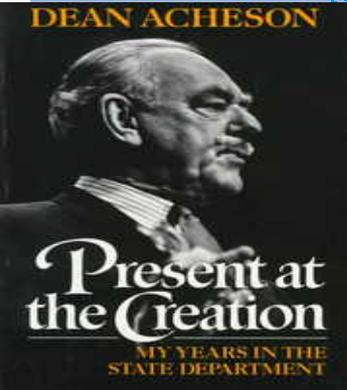
# 일본 VS 미국.소련의 전쟁

1945년 8월 9일 23시 소련은 130만명으로 구성된 육군 50개 사단과 탱크 3천5백대, 항공기 4천8백기로 대일전 참전





#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세계적 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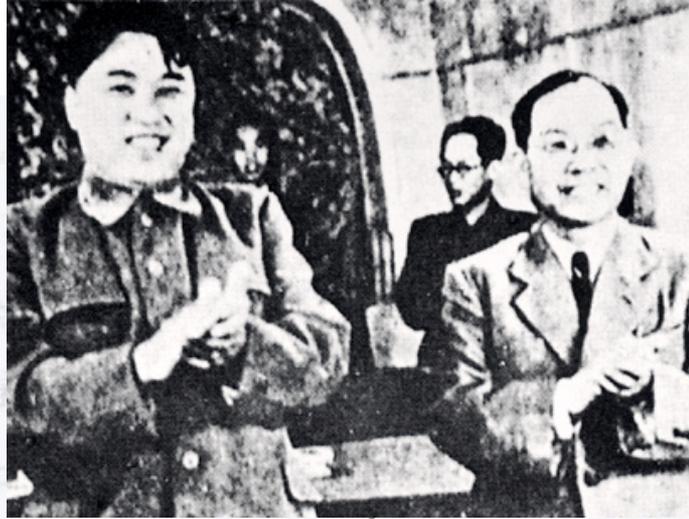
- United States and Allies
- Soviet Union and Allies
- Other Communist Countries

FRG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est Germany)  
GDR -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 Germany)

B

- X1-B(홍노)
- X2-B(유연)
- X3-B(돌궐)
- X4-Ba(요, 금)
- X5-BA(몽골)

Z(대분단선)



대륙(X)



기)  
별기)  
등)



X  
X  
X



- Y6-d(이베리아)
- Y7-d(네덜란드)
- Y8-DC'A'(19사)
- Y9-DC(미국, 1)
- Y10-Dcb'a'(미

미 일본)  
와 일본)  
국일본)  
본)  
0년 뒤)  
C  
장(Y)



Z(

코리아

#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9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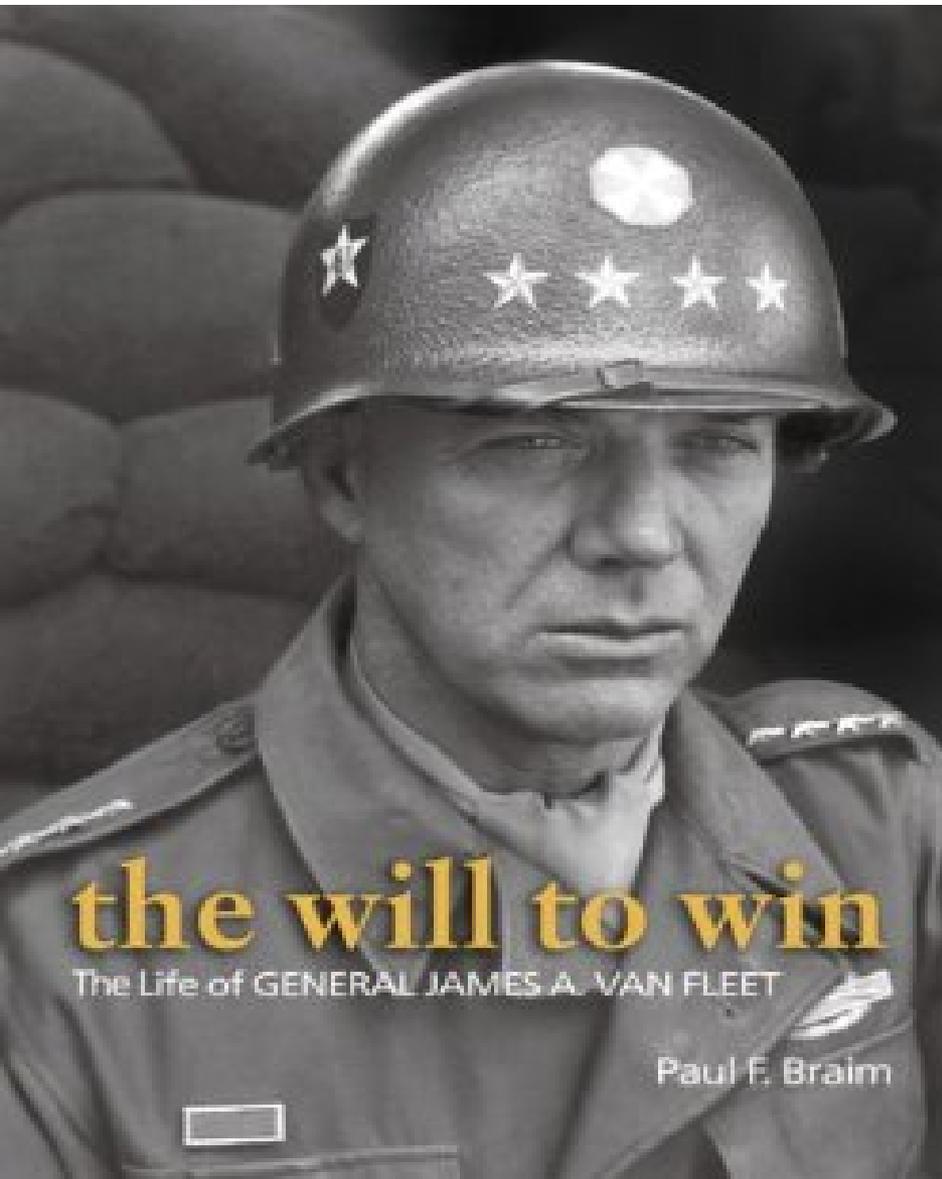
(1950. 10. 19)



# 모택동과 아들 모안영 (Mao Zhedung and his son Anying)



# James A. Van Fleet와 외아들 Jr.



## Van Fleet's Son Reported Missing

BROOKLYN, N.Y., April 2 (AP)—James A. Van Fleet Jr., 24-year-old only son of the U.S. Eighth Army commander, was listed by the Fifth Air Force today as missing in action on his third night of landing operations.

Young Van Fleet and his crewmen were listed to return Friday from a strike near Buechun in Northwest Korea. With him were Lt. John A. McAllister of Portland, Ore., navigator; Sergeant and Airman First Class Ralph A. Phelps of Merrill, Wis., engine gunner.

Another Western commander, the late Marshal Jean de Lattre de Tassigny of France, also led a unit fighting the Communists. The son, Lt. Li Bernard, 24, was killed in action south of Hanoi, May 24, 1954.

Young Van Fleet and his crew were listed to return Thursday night, but could

not be located because of bad weather, it was reported by the Fifth Air Force.

At 2:15 a.m. Friday Van Fleet reported his fuel supply was low and he planned to circle on a secondary target. It was the last message from the B-24 Superfortress.

An Air Force spokesman said the location should have been enough fuel to last until 4:30 a.m.

Hundreds of planes searched Friday and Saturday, dumping bombs on Communist supply lines as they searched over the target area. The search was called off Saturday night.

Capt. J. Lawrence Collins, Army chief of staff, notified the young man's mother at her home in Long Beach, Calif. Young Van Fleet, a West Point graduate, and his wife were separated. She and their children, reside in New York City.



LT. JAMES VAN FLEET, JR.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발전

## Development of S.Korea Democracy and Economy



## • 주체사상의 등장 The Appearance of Juche Ideology ( “Self-Reliance” )

- 1927, 1930 : 항일시기
- 1955 주체확립, 1967유일사상체제
- 1972 헌법: 공식 통치이데올로기
-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

## ○ 주체사상의 지도원리(指導原理)

4대자주노선(自主路線) (65.4, 반둥)

- (1) 사상(思想)에서의 주체
- (2)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 (3)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 (4) 국방에서의 자위(自衛)

## ○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유일사상)

- 김일성 :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 김정일 :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 독일통일과 소련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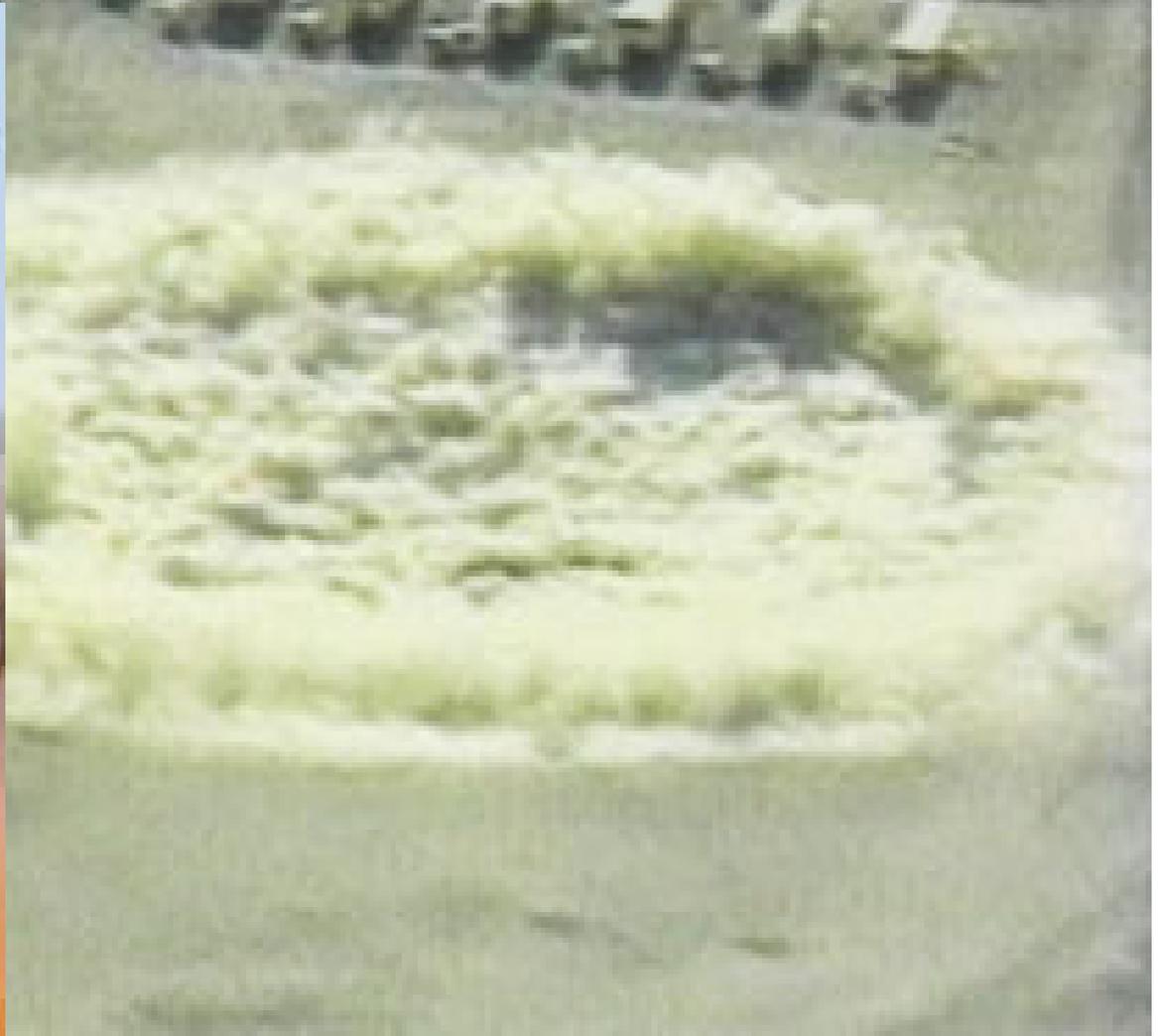








# 조선의 핵 및 대륙간 미사일(인공위성) 개발



# 70년 북한의 3대 세습(1945-201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군·정 권력장악 과정 비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년월일	1912년 4월 15일 ~ 1994년 7월 8일	1942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	1982년 1월 8일 ~
권력장악 이전 직책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1948년 8월 28일)	당 선전선동부장,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1973년) 국방위 제1부위원장(1990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2010년 9월 28일)
당권	조선노동당 위원장 (1949년 6월 30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1997년 10월 8일)	조선노동당 제1비서 (2012년 4월 11일)
군권	최고사령관(1950년 7월 4일) 원수(1953년 2월 7일) 대원수(1992년 4월 12일)	최고사령관(1991년 12월 24일) 원수(1992년 4월 20일) 대원수(2012년 2월 14일 · 사후)	대장(2010년 9월 27일) 최고사령관(2011년 12월 30일) 원수(2012년 7월 17일)
국가권력	공화국 내각 총리(1948년 9월 9일) 군사위원장(1950년 6월 26일) 공화국 주석(1972년 10월 27일)	국방위원장(1993년 4월 9일) 국방위원장 재추대(1998년 9월 5일)	국방위 제1위원장 (2012년 4월 13일)

**북한군의 차수 이상 명단과 계급장 문양**

대원수  
왕별(뒤에 북한 국화 목란 잎) + 국장(國章)

김일성 김정일

공화국원수  
왕별(뒤에 목란 잎 절반) + 국장

김정은 (김정일 계급 승계)

인민군원수  
왕별(뒤에 목란 잎 없음) + 국장

이음실 (직업군인 중 최고계급)

차수  
왕별 위여 국장

김영춘 김일철 김정각 이용무 이하일  
전재선 최동해 현영철 현철애(9명)

# 대한민국 : 1997년 부정부패, 외환위기 S. Korea: Corruption and Financial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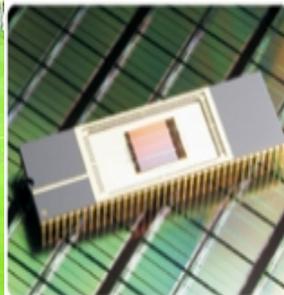


# 월드컵, 민주화, 세계화, 세계적 경쟁력



##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주요 품목

품목	점유율(%)	인증기업
메모리반도체	45.1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TFT-LCD	46.5	삼성전자 LG필립스LCD
PDP	54.0	삼성SDI LG전자
LNG운반선	63.0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선박용 대형 디젤엔진	59.6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STX중공업
오토바이용 헬멧	32.2	홍진HJC
사이클용 신발	30.6	나눅스
냉장고	14.3	삼성전자 LG전자
에어컨	22.3	LG전자 삼성전자
산업용 모니터	56.1	코텍



메모리반도체



PDP



LNG운반선

# 2000년대 이후의 한류(드라마, 영화, 음악, 춤)



# 세월호와 1990년대의 재현



# 코리아의 부정적 모습

## Korea's Negative Aspects

### 남(South Korea)

- \* OECD 국가 중
- 자살율 1위 / 저출산율 1위
- 교통사고율 1위
-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 200만 (\* 인구당 1위)
- 양주소비량 1위
- 인터넷 음란물 다운율 1위
-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 1위
- 학교폭력 1위
- 이혼율 2위, 청소년 흡연 세계 2위(여고생은 1위)
- 형사소송율 일본의 10배
- 어린이 유괴 1년에 8천건

(기독교당, 2012년 18대 총선 자료)

### 북 (North Korea)

- 세계 최장의 독재국가
- 김일성주의교 국가(2천 5백만의 신도)
- 15만~20만이 정치수용소에 수감
- 인권위험지수 세계 7위
-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가중의 하나



10·4 선언문에 담긴 경제분야 합의 내용





## 2010년 남북한 주요 지표

\*2009년 기준

	남한	북한	남/북(배)
인구(만명)	4,941	2,418.7	2.0
경제성장률(%)	6.2	-0.5	-
1인당 GNI(달러)	20,759	1,074	19.3
무역총액(억달러)	8,916	42	212.3
수출(억달러)	4,664	15	310.9
수입(억달러)	4,252	27	157.5
석탄생산량(만 t)	208.4	2,550	12.2
발전전력량(억kwh)	4,739	237	20.0
원유도입량(천배럴)	872,415	3,854	226.4
쌀*(천 t)	4,916	1,910	2.6
철광석(만 t)	51.3	509.3	0.1
자동차(천대)	4,272	4	1,068.0
시멘트(만 t)	4,742	627.9	7.6
철도총연장(km)	3,557	5,265	0.7
도로총연장(km)	105,565	25,950	4.1
항만하역능력(천 t)	830,022	37,000	22.4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연합뉴스

# 남북한 국방비 비교

북한은 공식발표자료 기준, 단위: 억달러



자료/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보고서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120109

@yonhap\_graphics(트위터)

YONHAP NEWS

# 한국전쟁 발발 60년 뒤인 2010년의 남과 북

## The North and South in 2010, 60 years after the Korean War



# 제2차 한국전쟁과 위기의 악순환 Vicious Cycle of a Crisis and a Second Korean War?



# Defensive or Offensive?



# 미.북의 대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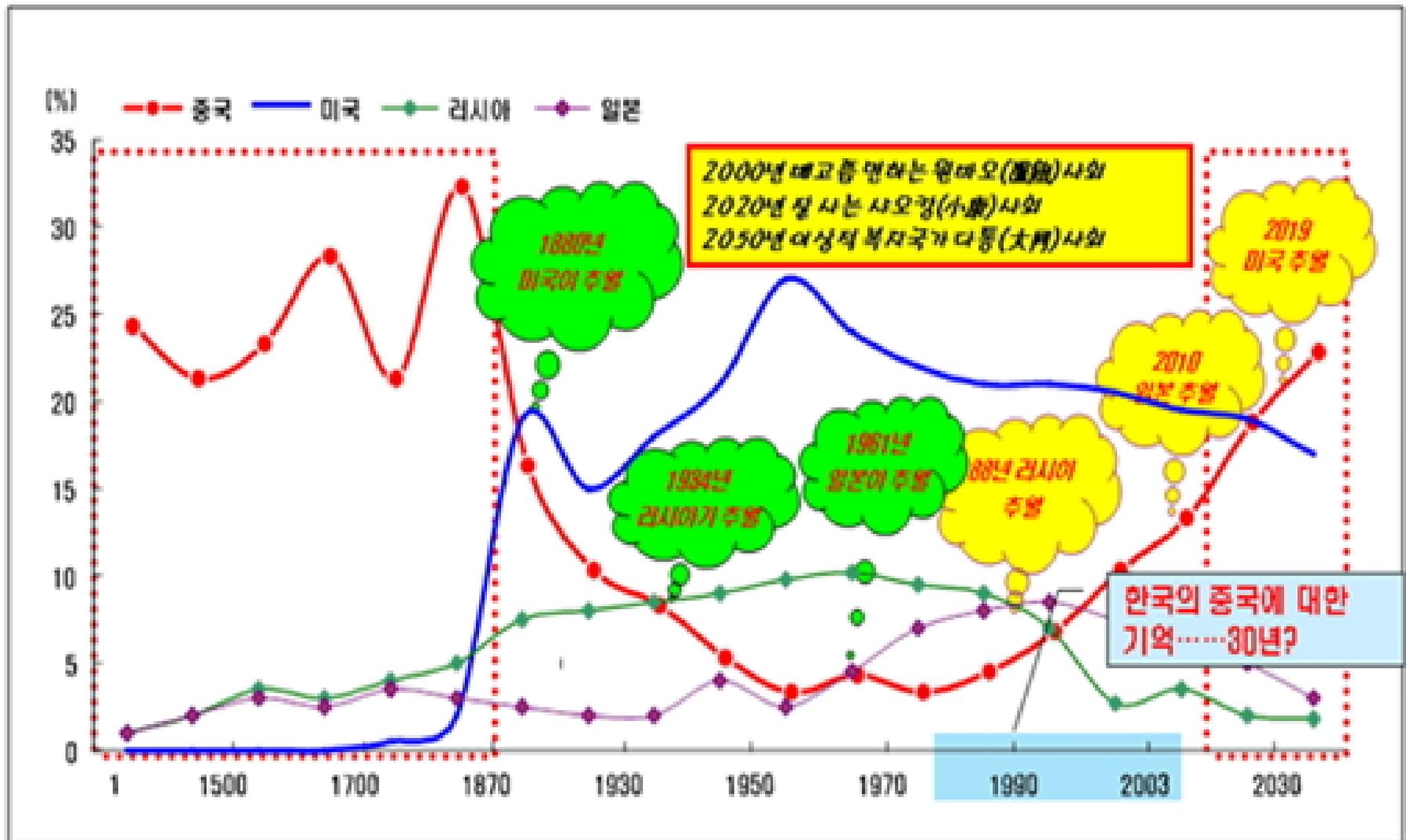
## S.Korea' s Dela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박근혜 정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미국에 요청

# 중국의 부상

[그림3]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추이와 전망



자료: Contours of world economy 1-2030, Angus Maddison, 중국경제금융연구소

# 중국의 지역적, 세계적 강대국화



북한 나진

한국

일본

중국

상하이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파키스탄

과다르항

인도

미얀마

타이

타이완

남지나해

필리핀

남사군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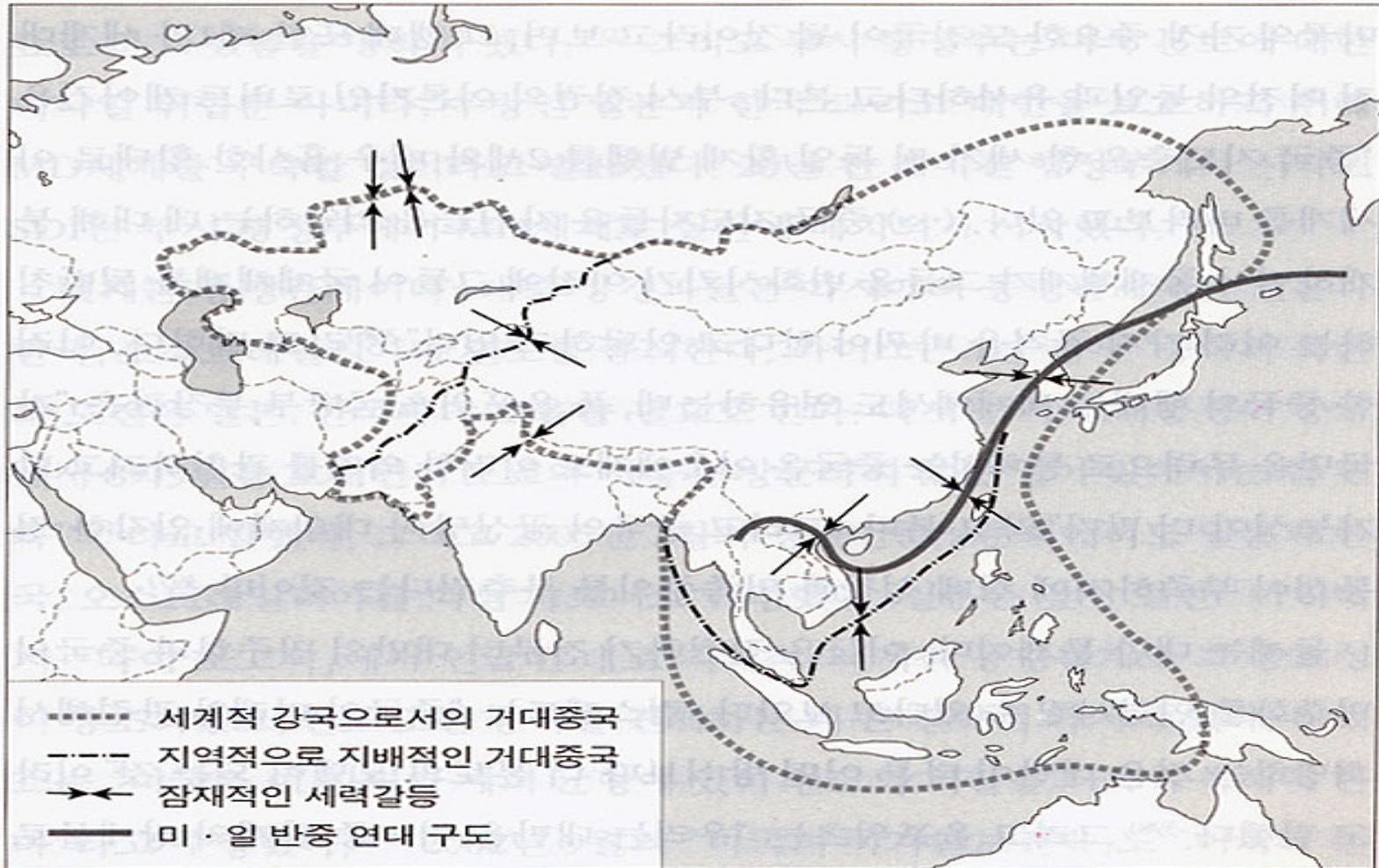
말라카해협

파키스탄 과다르항, 중국, 항만공사에 2억 달러 투자. 중국-파키스탄 철도 및 송유관 건설 논의

미얀마 스루이항-중국 운항 간 송유관 건설 추진

진주목걸이 전략

# 동아시아의 대분단선과 미.중 G2 대결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권과 미국

※출처: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 Pivot to Asia and S.Korea as Linchpin



- **미국의 "Pivot to Asia"와 Cornerstone and Linchpin**
  - 2011년 11월 클린턴 장관이 Pivot to Asia를 공식화 "향후 10년간 미국은 외교, 경제와 전략 등 방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 (일본은 Cornerstone, 한국은 Linchpin)
  - 미국의 군사력 60%를 아태에 배치, 공해(Air-Sea)전략 수립
- **S.Korea as a Linchpin for the Pivot to Asia**
  - 2010년 6월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
  - 2013년 5월 7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문: 한미동맹이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

# 중국에 대한 일본의 불안

- 1993년 일본의 GDP는 중국보다 7.5배. 2003년에는 3배로 축소. 그러나 구매력평가(PPP)로는 중국이 일본의 1.77배
- 2004년 무력총액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
- 2004년 종합국력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중국사회과학원)
- 2004년 이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친밀도가 친밀도보다 급격하게 상승
- 2005년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
- 2010년 중국이 명목 GDP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가 됨

# 해양과 대륙(남과 북)의 충돌지점 1

서해 5도지역의 첨예한 군사대치 상황



남북한 해군  
전체 전력

	남한		북한
	160여척	수상전투함	430여척
	20여척	지원함	470여척
	10여척	잠수함	90여척
	70여대	항공기	-

# 해양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 2



# 해양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 3

## 중,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본격 검토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베이징 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방공구역의 '최대치'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자국이 영유권 구분 기준으로 제시한 '남해구단선(nine dash line)'을 덮는 형태다.



### 지난해 증강된 중국 해군력(총 28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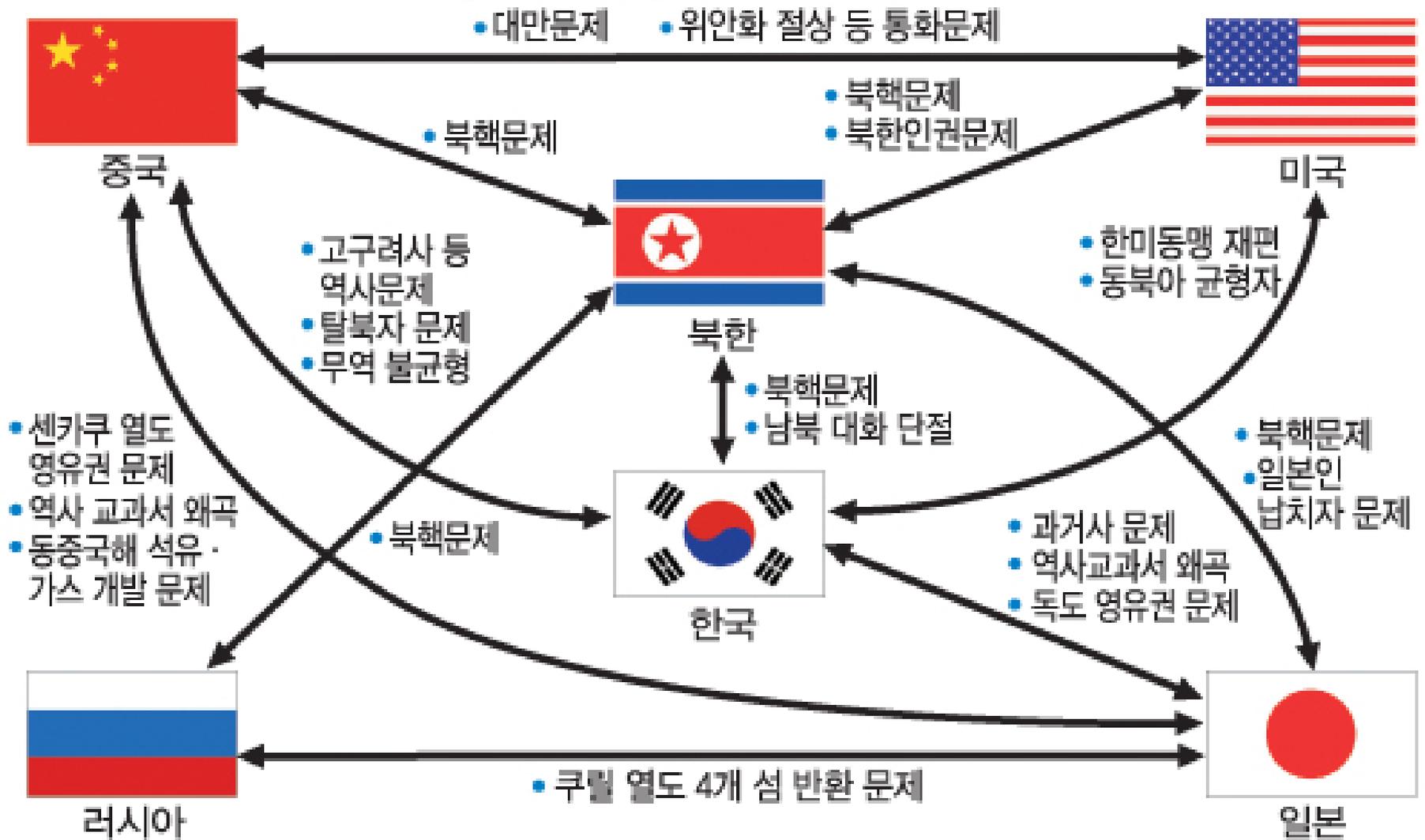
구축함	2척	수송함	2척	핵 잠수함	1척	측량선	2척 등
호위함	12척	디젤 잠수함	4척	잠수함지원함	2척		자료: 국제재선

### 중국의 제1 도련선 돌파

2013년 7월 14일 중국 군함 5척, 홋카이도 부근 소야(宗谷) 해협 첫 통과  
 2013년 7월 24일 중국군 초계기, 오키나와 부근 마야코(宮古) 해협 첫 통과  
 2014년 2월 3일 중국 군함 3척, 보르네오 부근 마카사르 해협 통과



## ■ 동북아 갈등 구도



# 통일코리아의 비전

통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통일은 천지개벽

코리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

# 통일에 대한 우려사항 (KBS, 2011)

(단위: %)

항목	비율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	45.9
실업과 범죄증가 등 사회적 혼란	26.3
정치·군사적 혼란	14.5
북한주민의 대량남한이주	12.2
국제관계의 혼선	1.2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홍순직,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4)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2만 달러 함정과 2~3%대 저성장 지속 우려

➡ 지속 발전 가능한 新 성장 동력과 발전공간 마련 필요

➡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이 해법

Down 5	주요 내용
잠재성장률 급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3%대로 급락 - 실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하회 (2012년 2.0%, 2013년 2.8%)
내수 위축	- 국내 소비와 투자 부진 지속 ·가계부채와 전세가 급등, 건설/설비투자 부진은 내수 위축 주요인
소득 분배 악화	- 세계화, 고용 불안 등으로 중산층 비중 하락 ·중산층 비중(2인 가구 이상) : 1990년 75.4% ➡ 2013년 3분기 68.0%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 악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 2010년 72.8% ➡ 2060년 49.7% ·고령 인구 비중 급등 : 2010년 11.0% ➡ 40.1%
남북관계 불안정	-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 ·주가 하락, 원화 환율 상승, CDS금리 급등, 해외 관광객 감소 등



- 백두산 직항로(서울-백두산) 개설
- 백두산 관광 실시

평양-개성 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 개보수

조선협력사업  
추진

조선협력사업 추진

해주 경제특구 개발  
(해주-개성-서울 연결)

개성공단 확대 개발

문산-개성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백령도  
대청도

북방한계선  
(NLL)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

모래 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평화수역 설정

연륙교 설치  
(강화도-개풍)

공동어로수역 설정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 수역 · 평화수역 설정)

# 2007 남북정상회담

# “평화번영공동선언”

#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4.5)

## 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변신

-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사실상의 섬나라 처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육상 교역이 가능한 대륙 경제 국가로 변신
- 생산 및 소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산업의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고 성장의 여유를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을 주도

## ②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 확보

- 국내 인구가 단숨에 8,000만명에 근접하면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인구 강국으로 부상

- 나아가 인접해 있는 동북 3성, 1억 1,000만 인구를 포괄하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제2의 고속성장 달성이 가능

### ③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 토지, 지하자원, 산림, 해양, 수자원 등 다양한 국가 자원의 증가로 경제성장의 토대가 강화
- 특히 첨단 산업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하락하고 자원 자주개발률이 향상되어 국가적 차원의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

#### ④ 첨단 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 남북한의 생산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본격적인 시너지가 창출
- 선진 기술과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의 결합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동남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 지위를 확보

#### ⑤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 연장

-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들이 수명주기를 거슬러 올라가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됨
-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기업들의 유턴 현상이 확산

## ⑥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

-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성장경로가 아니라 단숨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특별한 성장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
- 국가 주도로 질서 있는 계획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본의 축적 과정이 생략된 채 대규모 자본이 즉시 투입 가능하여 예산 제약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고속 성장기에 진입
- 전 산업분야에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 21세기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 도약이 가능하여 단숨에 고효율 친환경 산업구조를 형성

## ⑦ 국방예산 절감 및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촉진

- 과도한 국방비 지출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증가
- 군수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물이 민간 부문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첨단 산업의 고속 성장을 추동

○ (명목 GDP) 통일한국의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위상

- 통일한국의 GDP는 2030년 3조 2,800억 달러를 기록, 2040년부터는 영국, 독일을 추월

(단위 : 10억 달러)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통일한국	1,643	2,077	3,280	4,956	6,056
한국	1,596	1,964	2,645	3,448	4,073
북한	47	113	635	1,508	1,982

자료 :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주 : 통일 경제의 장기 전망은 크게 전환 단계(2013~2027), 공고화 단계(2028~2037), 성숙 단계(2038~2050)의 3단계로 구성.

○ (1인당 GDP) 2050년에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8만 6,000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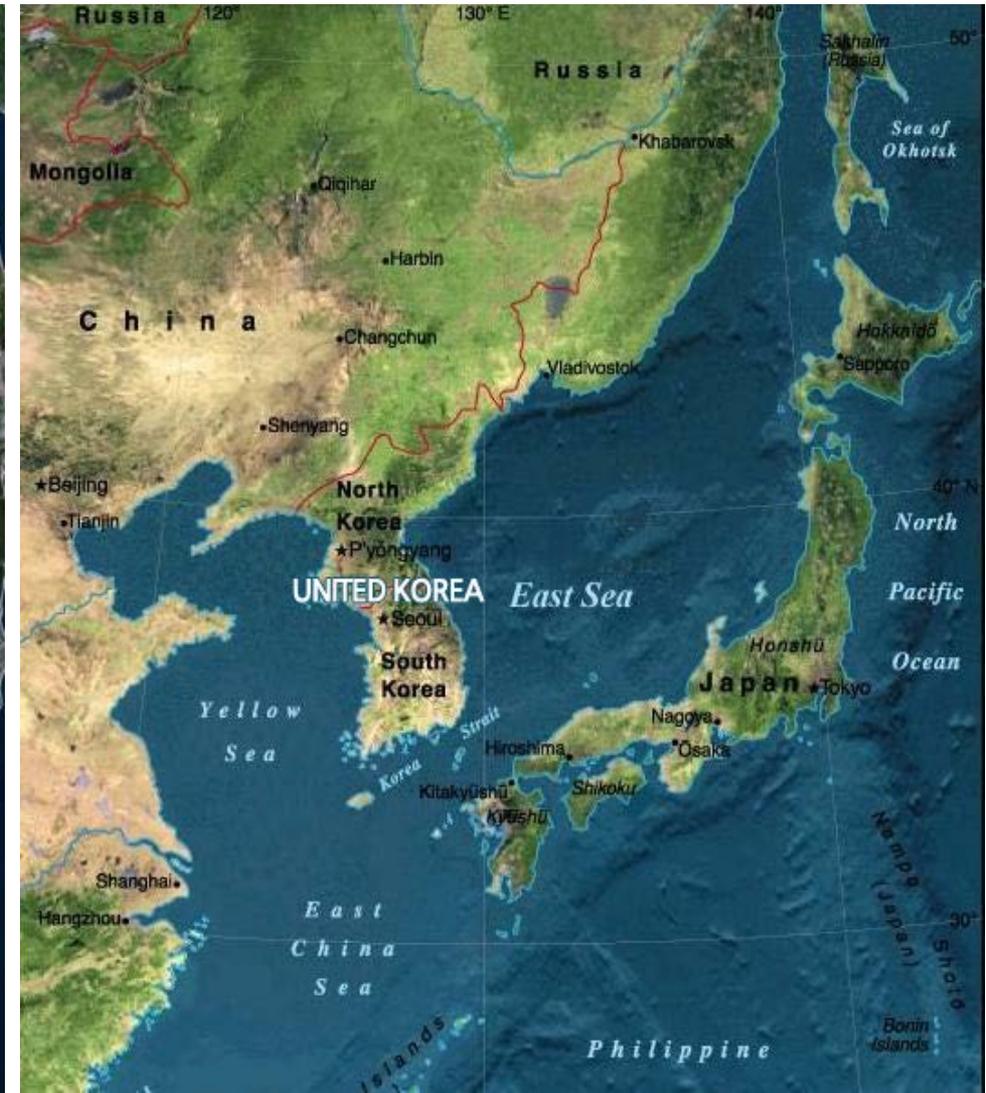
-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30년 43,000달러, 2050년에는 86,000달러 위상을 보일 전망

(단위 : 달러)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통일한국	22,000	28,000	43,000	66,000	86,000
한국	32,000	40,000	54,000	74,000	96,000
북한	2000	4,000	23,000	53,000	70,000

자료 :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 섬에서 대륙과 대양을 잇는 다리로



전쟁  
의  
진원지  
에서

평화  
의  
발원지  
로





새우에서 돌고래로

# 거열에서 사두마차로



# 세종: 하늘백성(天民)의 나라



-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조선의 비전을 여민락(與民樂), 치화평(治和平), 취풍형(醉豊亨)이라는 노래로 표현했다.
- 세종은 살아감의 즐거움을 누리(生生之樂) **하늘백성(天民)**들과 함께 즐기고, 나라가 화합하고 평화로우며 취할 정도로 생활이 넉넉하고 문명이 꽃피는 사회를 꿈꾸었다.
- 세종 26년 7월 25일, 세종은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 우러러 부모를 섬기고 굽어 자녀를 잘 길러, 백성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 나라의 바탕이 튼튼해지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의가 바르고 서로 겸양하는 풍속이 일어나, 항상 화합하고 평화로우며, 해마다 풍년을 이루어 함께 태평시대의 즐거움을 누리자.”고 말한다.

# 김구: 모두 성인(聖人)인 나라



60년 전인 1947년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자유'를 기본가치로 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자고 한다. 이 일이 **우리 민족의 천직(天職)**이며, 여기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한 민족은 일언이 폐지하면 모두 성인(聖人)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면 간 데마다 신용을 얻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春風)이 태탕(駘蕩)하여야 한다.”

# 와다 하루키: 동아시아를 통일하는 통일코리아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장과 대결의 장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성립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남북한이 서로 접근하여 통일되고 혁신된 남북한을 만들어 이웃나라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러한 남북한은 동아시아 공동의 집의 중심이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의 집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심은 틀림없이 통일되고 새롭게 개혁된 남북한이다”

“세계에서 동북아시아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은 지역은 없고 동북아시아만큼 공통 요소가 적은 동시에 이질적이며 대립적인 지역은 없다.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이 과거의 한을 풀고 사회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 결속은 전 세계가 평화롭게 협력해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공동의 집이 탄생한다면 전 인류적 공동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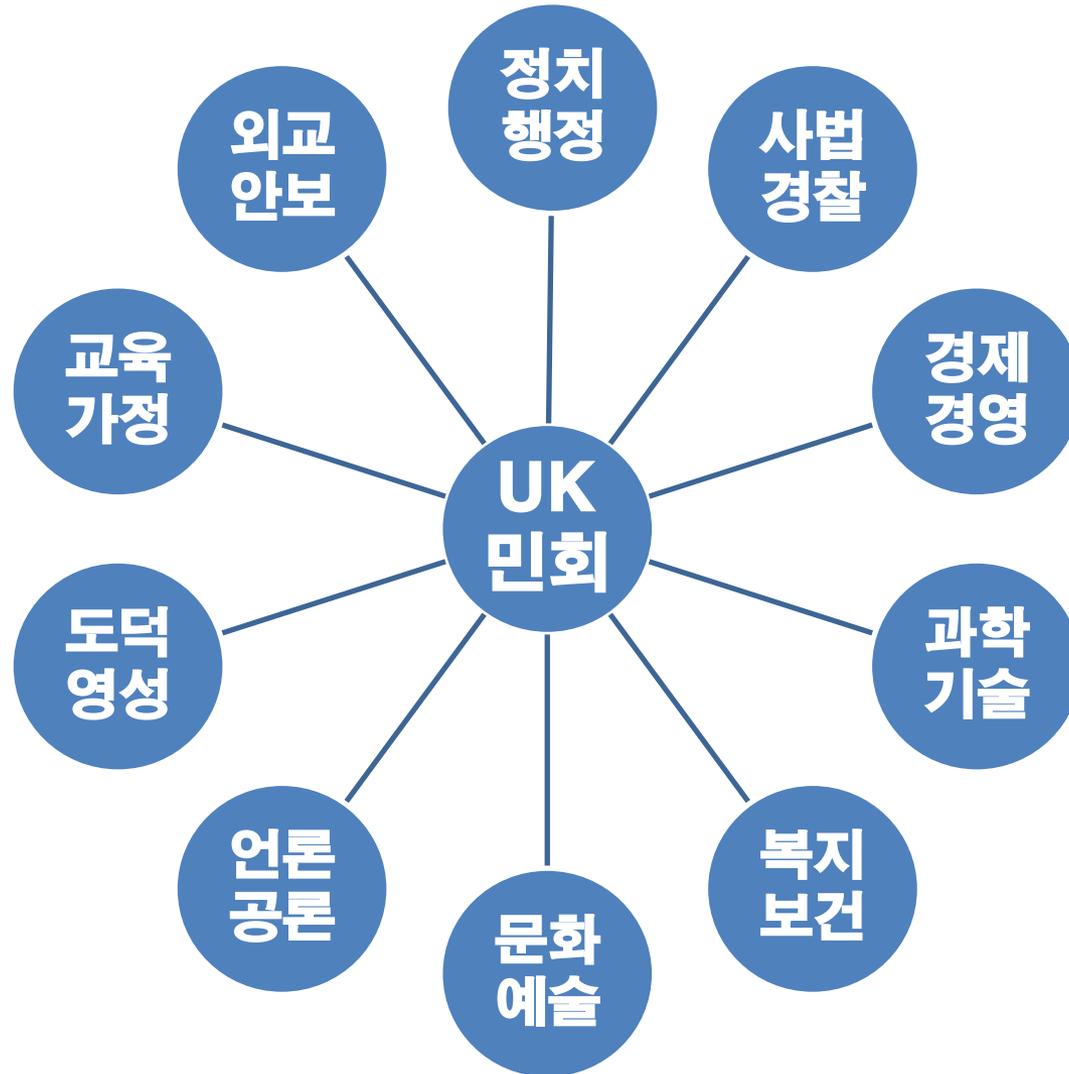
# 핵심가치(헌법1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 Core Value : Everyone has Equal Dignity

-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따라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에 대한 기본규정(뿌리), 잣대로서의 존엄
  - \* 모든 인간 VS 특별한 인간, 존엄함 VS 존엄하지 않음
- 인간의 존엄=인권(人權)+인의(人義), 천부인권(天賦人權)+천부인의(天賦人義) \* 권(right)=의(義, right).
- 인간의 권리(인권):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 .....
- 인간의 존엄을 핵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재설계하고 재구축함. 지금부터 남, 북, 세계에 적용함
- 인권을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 New, United Korea의 10대 영역

## New, United Korea's 10 Spheres



# 통일코리아를 위한 전략

영적, 정신적 대각성: 원수를 친구로  
새코리아, 통일코리아로의 전환  
자신감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

# 영적, 정신적인 대각성

## Old Korea=>New Korea

### Divided Korea=>United Korea

- 원수를 증오하면서 닮는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D. Tutu)
- Ignatieff: 화해는 적대감을 정체성으로 삼는 곳에서 배신으로 비침. 보복을 좋은 변화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 \* R.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에 나오는'tit for tat'(이에는 이, 양갚음, 보복, 고소함)
- 연평도 포격 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조사: 해병대의 자랑이었던 그대들에게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게 우리 해병을 죽고 다치게 한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백 배, 천 배 갚아주겠다.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모두 뼈에 새겨 반드시 복수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 "도발하면 백배, 천배 보복하다는 정신"(2012.10.18)
- 로마서 12:14-21: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사탄의 체제는 증오심에 기반한 체제이자, 증오심을 증폭시키는 체제 (박해하는 자 축복,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



승님이미제를천백배로복수하자!



모건 프리먼

맷 데이먼

#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클린트 이스트우드감독의  
감동 실화

적을 다루기 (Playing the enemy)



WARNER BROS. PICTURES PRESENTS  
AN ASSOCIATION WITH SPYGLASS ENTERTAINMENT A REVELATIONS ENTERTAINMENT/MACE NEUFELD PRODUCTION A MALPASO PRODUCTION MORGAN FREEMAN MATT DAMON "INVICTUS"  
COSTUME DESIGNER DEBORAH HOPPER EDITOR JOEL COX A.C.E. GARY D. ROACH PRODUCTION DESIGNER JAMES J. MURAKAMI DIRECTOR OF PHOTOGRAPHY TOM STERN, A.S.C. EXECUTIVE PRODUCERS MORGAN FREEMAN TIM MOORE  
BASED ON THE BOOK "PLAYING THE ENEMY" BY JOHN CARLIN SCREENPLAY BY ANTHONY PECKHAM PRODUCED BY LORI MCCREARY ROBERT LORENZ MACE NEUFELD PRODUCED AND DIRECTED BY CLINT EASTWOOD



www.invictusmovie.co.kr

3월 대개봉

Soundtrack Album on Sony Music Entertainment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destroy an enemy is to  
make him a friend.”



#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를 추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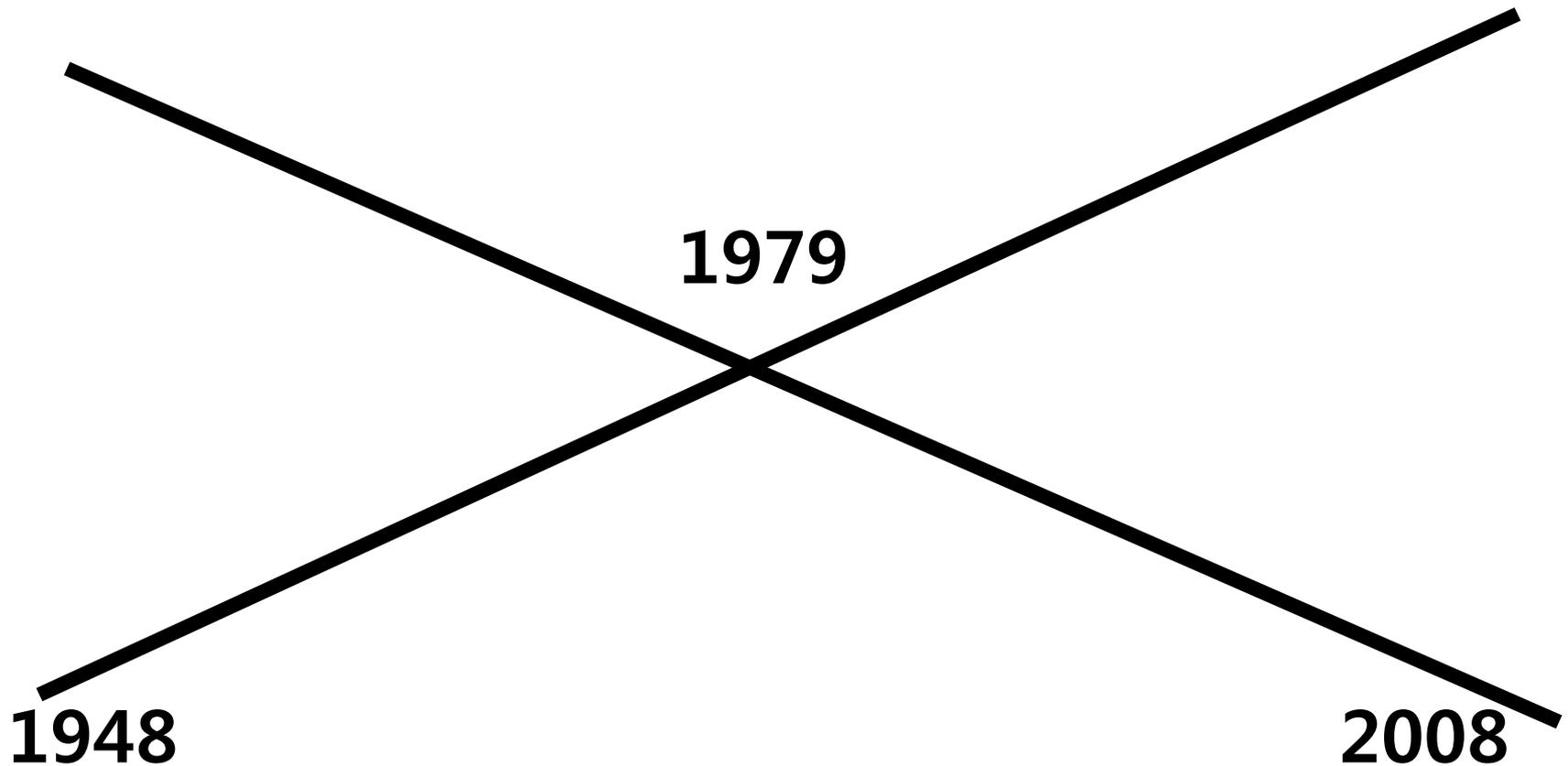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기**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 남북간 힘의 역전, 국제관계의 변화

North Korea

South Korea



# 여우, 호랑이,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United States 9,400 total warheads

**Heading downwards**  
World's most powerful and reliable arsenal. Some 200 warheads deployed in Europe; additional 2,500

warheads are spares and not counted as operational. Years of balanced reductions with the Russians in both strategic and tactical

warheads. Committed under President Obama to new talks to limit each side to 1,000 strategic warheads



500 tactical

2,126 strategic

## France 300 total warheads



300 strategic

**Stable** A recently renewed arsenal. Small reduction announced in 2008 to less than 300 warheads, but no pressing need for change or updates. Strong political attachment to independent deterrent

## China 240 total warheads



180 strategic

**Stable** Strong commitment to enough weapons to deter attack on its heartland, but no attempt at parity with the US or Russia. Many "strategic" weapons for regional use

## UK 185 total warheads



160 strategic

**Stable** Despite talk of including small arsenal in multilateral talks, no firm commitment to do so. One submarine probably will be cut, but no guaranteed change in total of 160-185 warheads

## Israel 200 total warheads



200 strategic

**Stable** Nuclear weapons never admitted and no details published, but arsenals thought to be about double those of India and Pakistan. A last-resort weapon against Arab invasion

## Russia 13,000 total warhea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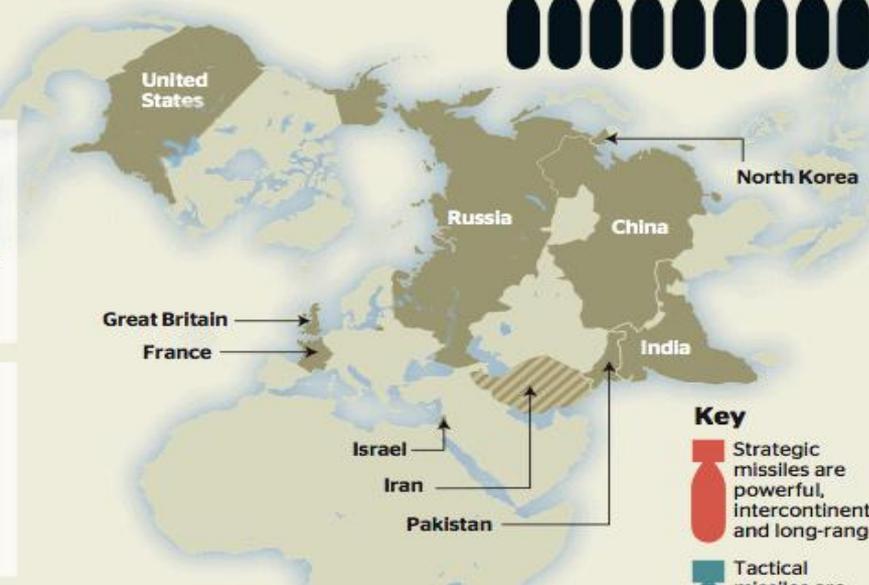
**Heading downwards**  
Big reduction from 1991 total of 15,000 warheads. A quarter of present total probably awaiting

dismantling. An ageing arsenal, expensive to maintain and update. Every incentive for further deep cuts



2,050 tactical

2,668 strategic



### Key

Strategic missiles are powerful, intercontinental and long-range

Tactical missiles are short-range and battlefield

Weapons in store or awaiting dismantling

## Pakistan 70-90 total warheads



60 strategic

## India 60-80 total warheads



60 strate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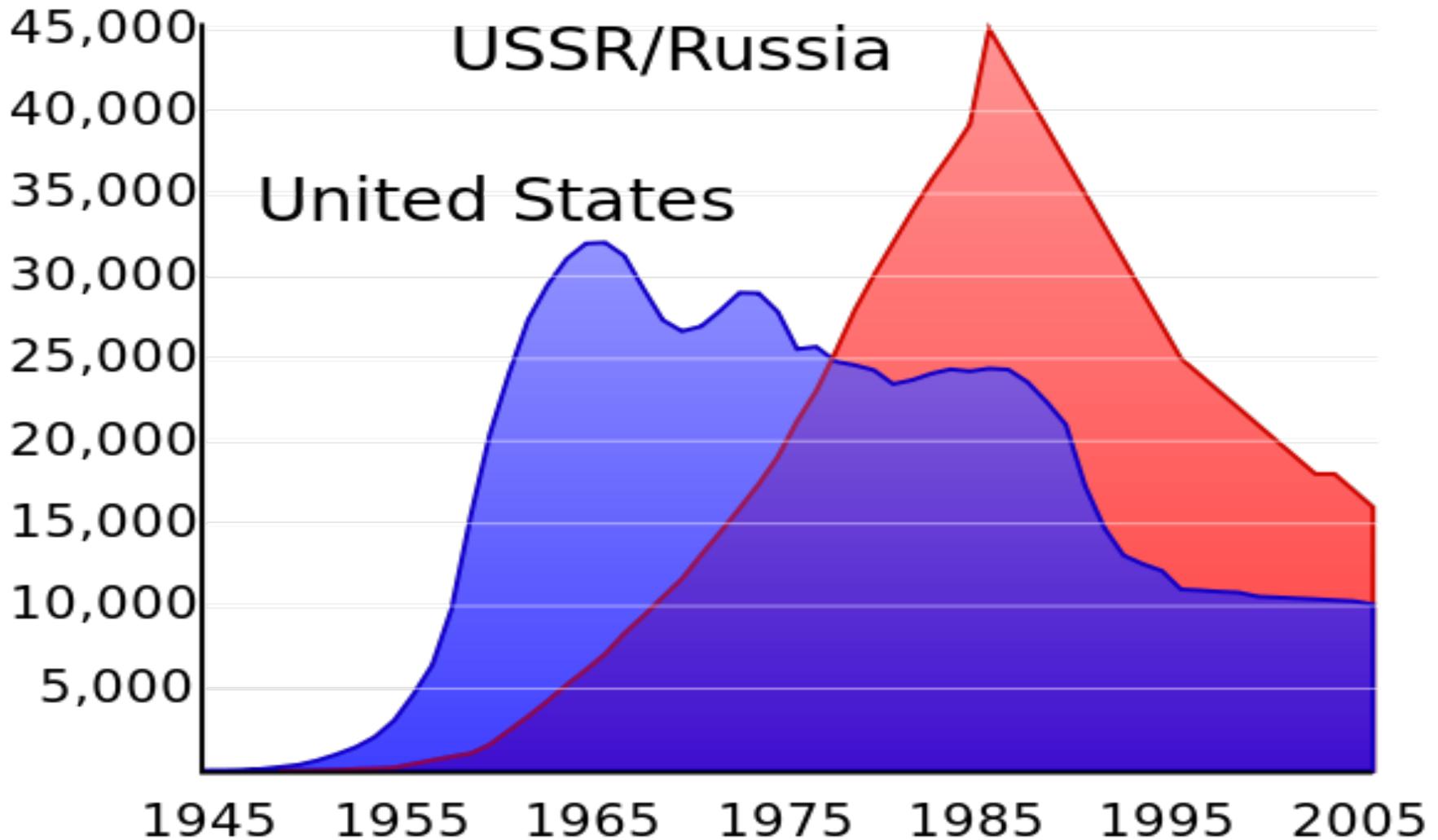
**Slowly increasing**  
Approximate equilibrium and no new nuclear arms race likely. All details and number are secret. Only strategic, not tactical missiles, held by each side

## North Korea Fewer than 10 total warheads

Fewer than 10 strategic

Political dependence on hugely expensive nuclear capability. Wants to increase but probably has no more than one or two warheads operational. Intentions depend on present six-power talks to scrap nuclear weapons programme

# 소련의 붕괴: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수



#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

## 4 Pillars that Support the North Korean Regime



#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1

## (새로운 세력의 중요성)

- 자유총선거 후 동독 최후의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동독군 해체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에펠만'이라는 '목사'
- 비밀경찰 슈타치청산을 담당했던 사람 역시 '요하킴 가욱'이라는 목사(요하킴 가욱은 최근 독일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됨)
-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서 리더가 된 인물들 중 다수는 서독에서 자발적으로 동독으로 이사를 와서 목회를 하던 목사. 이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동독지역으로 자의로 와서 동독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키워냄
  - 현재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목사 중 한 명
  - 이들은 동독 지역 내에서 약자에 대한 봉사를 통해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어냄.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은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통일의 혼란기에 시민들이 이들을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여기게 되고 당시 동독 공산정권의 무력진압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무혈' 혁명을 이루게 됨

# '아랍의 봄' 이후 독재자들 거취



튀니지



지도자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집권년도 1987

퇴출년도 2011.1.14

**사임**

사우디로 도주

반정부시위  
/혁명 중  
사망재(추정)

~200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1969

2011.10.20

**사망**



~3만여명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1981

2011.1.14

**사임**

2012. 6.2  
종신형 선고 받음

~370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2000

퇴진 거부

**집권중**



1만3천명 이상



예멘



알리 압둘라 살레

1978

2011.11.23

**사임**

권력이양안 서명

1,5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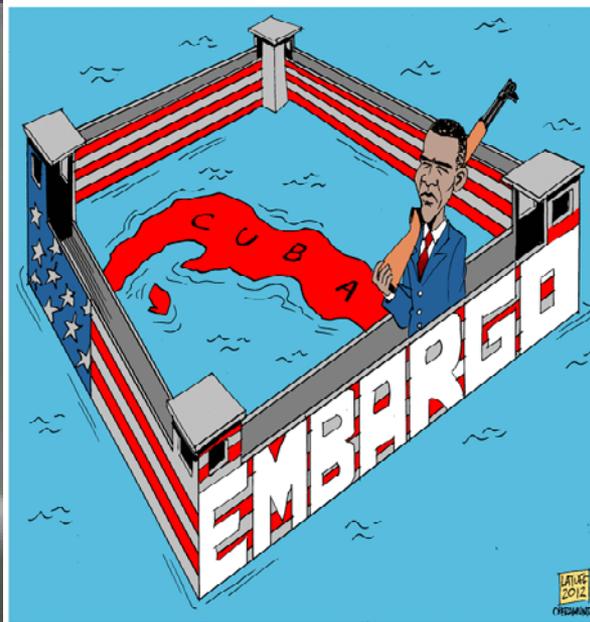


#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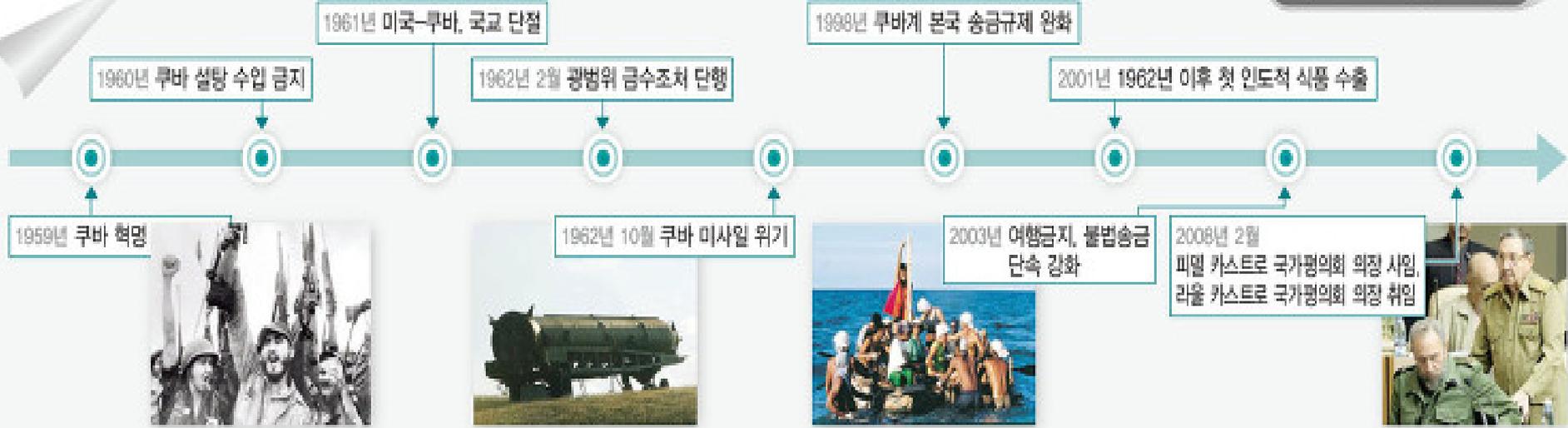
## How Does a Change Occur? 2

- 자유선거가 이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프(Hans Mordow)**
-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도 일반 시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80년대 상황으로 보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한 사람이 150만명에 달했고, 서독에서 동독을 방문한 사람도 10만~15만명에 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호 방문은 물론, 편지 교환, 전화, 경제적 교류 등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완전한 분단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적 교류가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지속적인 교류가 없으면 남북 간에는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적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은 모든 면에서 대립은 최대한 자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는데,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대립관계에서 빠져 나와 **협상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연합뉴스, 2010.10.11)
-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교류할 것인가? **인도적 차원의 교류, 학교학생,, 역사, 문화, 스포츠, 산림녹화, 농업협력 등**

# 쿠바에 대한 60년간의 봉쇄정책 전환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 일지



# Vietnam: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수립(1995), 무역협정(2000), 핵협력협정(2010)

**VIETNAM ECONOMIC TIMES**  
SUPPLEMENT JUNE 2005

COMPLIMENTS OF  
US-VIETNAM  
CHAMBER OF COMMERCE  
WWW.USVICHAMBER.ORG  
Email: info@usvichamber.org



**USA - VIETNAM**  
10<sup>th</sup> Year Commemoration

##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In association with  
The Press & Information Department of MoFA

## World Economics NEWS

### US - Vietnam Trade Accord

 Sign 



Asia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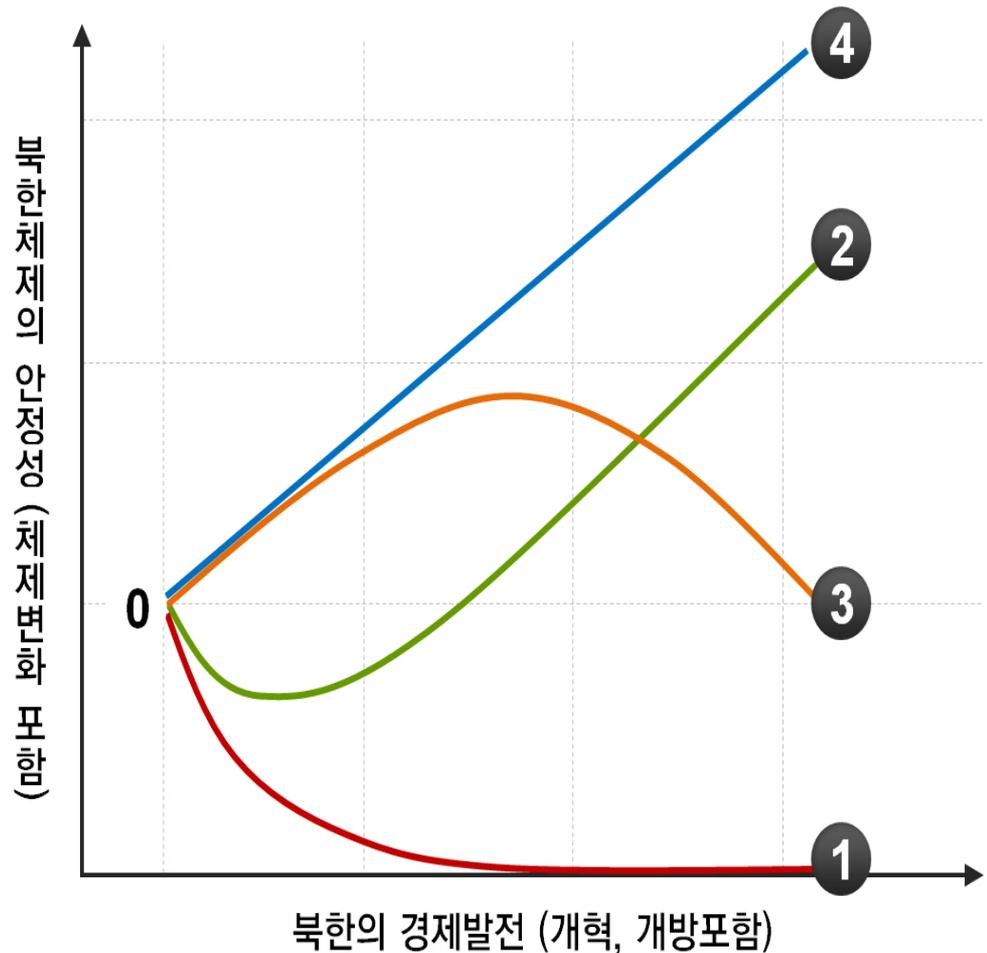
The Importance of being Unimportant

#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3(경제)

## *States & Social Revolutions*

THEDA SKOCPOL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 어떻게 변화는 일어나는가? 3

## How Does a Change Occur? 3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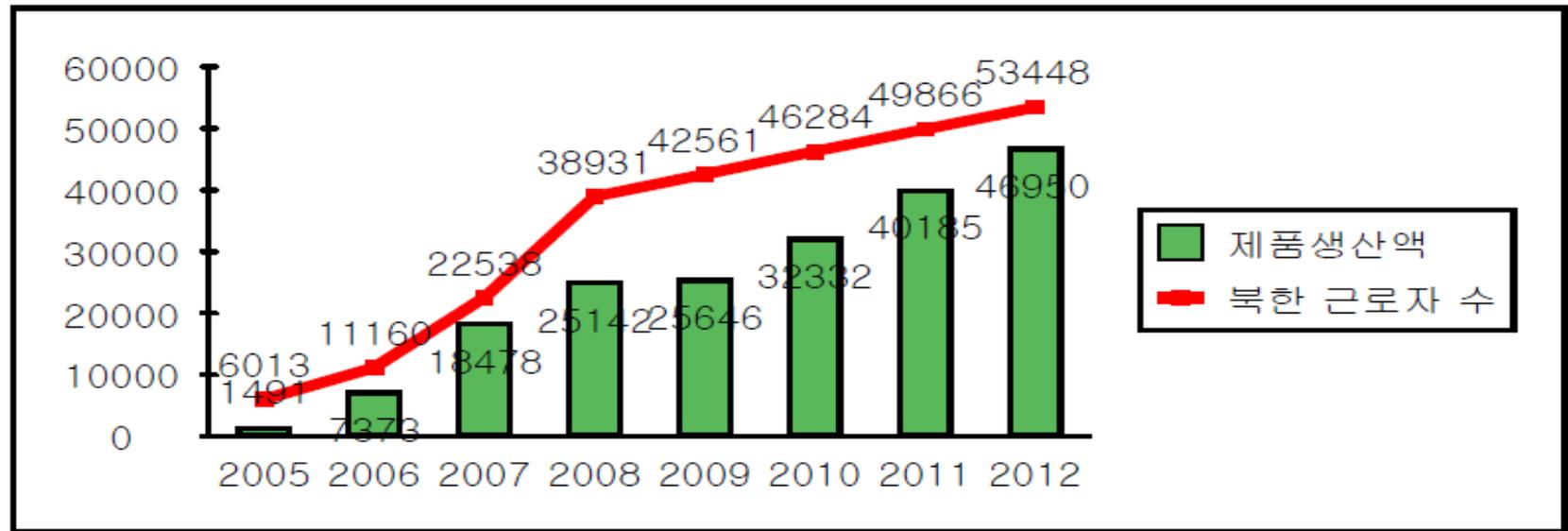
개성공단 사업규모 및 기대효과

구 분	면적		업체수	고용인원	연간 생산액 (억 달러)	사업기간
	만평	Km <sup>2</sup>				
제1공단	100	3.3	150	20,000	20	2001
제2공단	300	10	450	60,000	60	2002~2004
제3공단	400	13.3	600	80,000	120	2005~2008
합 계	800	26.6	1,200	160,000	200	

<그림 1>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한 근로자 현황

단위: 만 달러, 명



### 〈 금강산관광의 의미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	61.4%	44.0%	59.5%	80.8%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	30.6%	44.0%	29.7%	19.2%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	8.0%	12.0%	10.8%	0.0%

### 〈 금강산관광의 남북관계 기여도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	31.8%	24.0%	27.0%	46.2%
많은 기여를 했다	51.2%	44.0%	59.5%	46.2%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5.9%	28.0%	13.5%	7.6%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1.1%	4.0%	0.0%	0.0%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조치”**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14.1. 전문가조사)

10·4 선언문에 담긴 경제분야 합의 내용



백두산

삼지연공항

- 백두산 직항로(서울-백두산) 개설
- 백두산 관광 실시

북한



신의주

안주

평양-개성 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 개보수

조선협력사업  
추진

평양

원산  
안변

조선협력사업  
추진

해주 경제특구 개발  
(해주-개성-서울 연결)

남포

개성공단 확대 개발

금강산 군사분계선

사리원

문산-개성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백령도  
대청도

해주

개성

문산

북방한계선  
(NLL)

연평도

인천

서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 구역 · 평화수역 설정)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

모래 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해주

개성

평화수역 설정

연평도

NLL

공동어로구역 설정

연륙교 설치  
(강화도-개풍)

서울

인천

# 김정은 시대 북한 각 지역별 19개 경제개발구

## 북한 19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 특수경제지대 📍 경제개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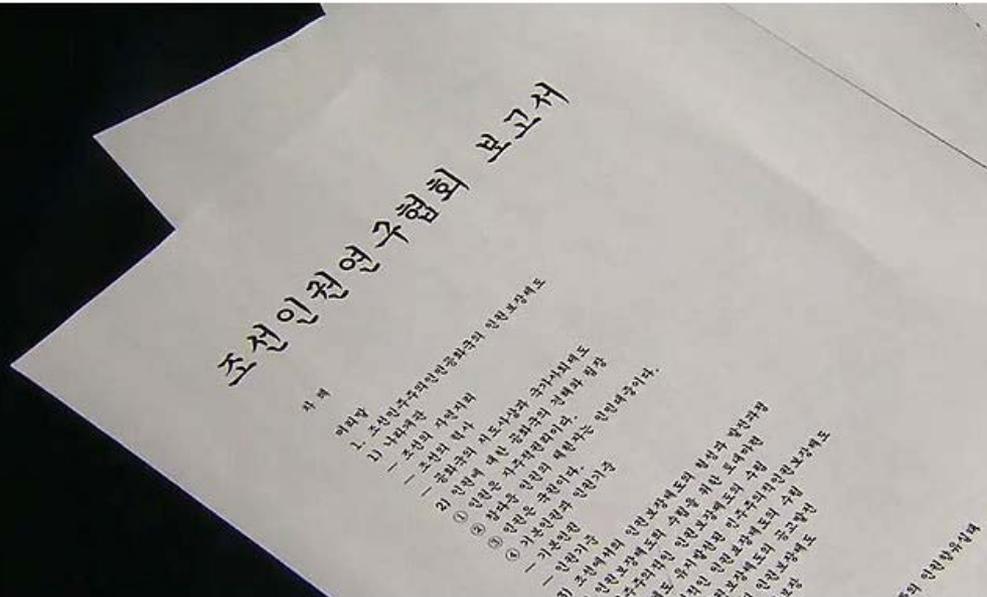
- 1️⃣ 특수경제지대 평안북도 신의주시
- 1️⃣ 암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룡운리(신의주시로 편입)
- 2️⃣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 3️⃣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 4️⃣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 포상리
- 5️⃣ 위원공업개발구 위원군 덕암리, 고성리
- 6️⃣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
- 7️⃣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 8️⃣ 북청농업개발구 북청군 부동리, 종산리
- 9️⃣ 청진개발구 함경북도
- 10️⃣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 11️⃣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 12️⃣ 혜산경제개발구 양강도
- 13️⃣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시
- 14️⃣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 15️⃣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 16️⃣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 17️⃣ 숙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 18️⃣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 19️⃣ 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



# 북한의 인권문제 지속적 제기 4



- 2014.2.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 9/19.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268개의 권고를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
- 9/13.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정면으로 대응



#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조치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14.1. 전문가조사)

## <신뢰의 개념>

- 신뢰란 상대방이 악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또는 무능력하게 행동하였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적인 방향으로 또는 유능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임
- 신뢰는 위험과 의존을 내포함. 즉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대상에 의존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안전한 존재(신체적, 정서적, 심리적)라고 느끼는 것이 필요

### <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46.6%	28.0%	51.4%	57.7%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개최	26.1%	36.0%	29.7%	11.5%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	13.6%	16.0%	10.8%	15.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8.0%	8.0%	5.4%	11.5%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 2단계 추진	2.3%	4.0%	2.7%	0.0%
새로운 남북경협 제안	2.3%	4.0%	0.0%	3.8%
기타	1.1%	4.0%	0.0%	0.0%

〈 남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27.3%	16.0%	27.0%	38.5%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22.7%	32.0%	24.3%	11.5%
천안함, 연평도 사건 유감이나 사과	17.0%	16.0%	18.9%	15.4%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10.2%	8.0%	8.1%	15.4%
대남 도발 중단 선언	10.2%	24.0%	5.4%	3.8%
금강산 관광 3대 선결과제 해결	6.8%	4.0%	10.8%	3.8%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통 문제 완전 해결	4.5%	0.0%	2.7%	11.5%
기타	1.1%	0.0%	2.7%	0.0%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

	총 합			
		보수	중도	진보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 분리, 비정치 분야 대화와 협력 계속 확대	79.5%	52.0%	83.8%	100.0%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등 현 수준의 남북관계 유지	17.0%	40.0%	13.5%	0.0%
북한이 변할 때 까지 인도적 지원도 축소	3.4%	8.0%	2.7%	0.0%

# 연합, 결연을 통한 변화 5

## Change through Uniting 5



## 강원도(북)



춘천시=법동군(강원 내륙지역 중심지화),

'원산시'(도청 기능)

강릉시·동해시=원산시(동해 중심항, 동부 지역 중심지)

고성군=북측 고성군

삼척시=문천시

속초시=통천군

양구군=창도군

양양군=안변군

영월군=이천군

원주시=판교군

인제군=금강군

정선군=고산군

철원군=북측 철원군

태백시=천내군

평창군=회양군

홍천군=평강군

화천군=김화군

횡성군=세포군

## 강원도(남)



## 황해북도



청주시=사리원시,봉산군(지역 중심지)

괴산군=곡산군

단양군=신평군

보은군=린산군

영동군=금천군,토산군

옥천군=평산군

음성군=신계군

제천시=연산군,수안군

증평군=연탄군

진천군=서흥군

청원군=은파군

충주시=송림시,황주군

## 충청북도



**통일: 언제?, 누가?**

#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법률상의 통일(de jure unification)

## • 독일의 경우

-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20년간 서독은 동독에게 연평균 32억불씩 경제지원
- 동서독 간에는 연 700~800만명의 인적 교류.  
당시 동독에서는 서독의 TV도 시청

## • 중국-대만의 경우

- 오늘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지난 2008년 마잉주 대만 총통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불과 6년 만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룸
- 중국-대만 간에는 현재 정기항공노선이 800여편 운행.  
연 왕래인원은 800만명. 8만개의 대만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에 상주하는 대만인은 2백만명을 넘음
- 중국과 대만은 이제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들어감

# 목표와 추진단계로서의 통일 시기

- **분단의 3단계와 통일의 3단계**

- 1945년 국토분단 → 2015년 심령의 통일
- 1948년 정부분단 → 2018년 정부차원의 합의
- 1953년 민족분단 → 2023년 국가연합(사실통일)

- **만들어가는 현실**

- 망국의 때, 분단과 전쟁의 때와 통일의 때
- 통일의 목표시기를 정하고 역산해서 통일추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삼두마차

- **중앙정부**

- 행정부: 대통령과 통일부 등
- 입법부: 국회(國會)와 민회(民會)
- 사법부

- **지방정부**

- 광역단체/기초단체
- 광역교육청

- **민간**

- 시민단체/학계/문화예술계/종교계
- 기업체/직능단체
- \* 민관단체

묶는 끈  
으로서의  
해외동포  
와 코리아  
의 친구들  
(Korean  
Diaspora  
and  
Friends of  
Korea)

# First Penguin

무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과감한 행동가, 실천가

천적 때문에 배고픔에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 무리 중에서  
물고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실행가





# **New Korea Community**

[www.onenewkorea.org](http://www.onenewkorea.org)

# **United Korea Coop**

[www.unitedkoreacoop.org](http://www.unitedkoreacoop.org)

# **United Korea Assembly**

[www.unitedkorea.org](http://www.unitedkorea.org)

# 배기찬 연락처

- [baekichan@gmail.com](mailto:baekichan@gmail.com)
- 010-9472-7541